

겨자씨.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19
AUTUMN
VOL.38

65
정성진 위임목사 은퇴 특집
我死教會生
김장환 목사, 김창인 목사, 김수현 목사,
손문영 장로, 김옥현 장로

08
해미월드복지재단
사랑의 날실과 나눔의
씨실을 엮어 희망을 심다

14
인터뷰 광승현 목사
"그마른 막대기처럼
나는 나에게
편한자를 쓴다"

33
2019 특별기획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②
줄리아 마틴
양국주

42
청년광장 | 청년 5인 토론
청년의 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02
초대시
접는다는 것
권상진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의 '정한' 나무
윤후명



AUTUMN SPECIAL THEME
듣고 행하며



접는다는 것

| 권상진



권상진

- 경북 경주 출생
- 전태일문학상,
경주문학상 등 수상
- 시집 『눈물 이후』

읽던 책을 쉬어갈 때
페이지를 반듯하게 접는 버릇이 있다
접혀진 자국이 경계 같이 선명하다

한 때 우리 사이를 접으려 한 적이 있다
사선처럼 짧게 만났다가 이내 멀어질 때
국경을 정하듯 감정의 계면에서 선을 그었다
곶이 생긴다는 건 또 이런 것일까

잠시 접어두라는 말은
접어서 경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포개지라는 말인 줄을
읽던 책을 접으면서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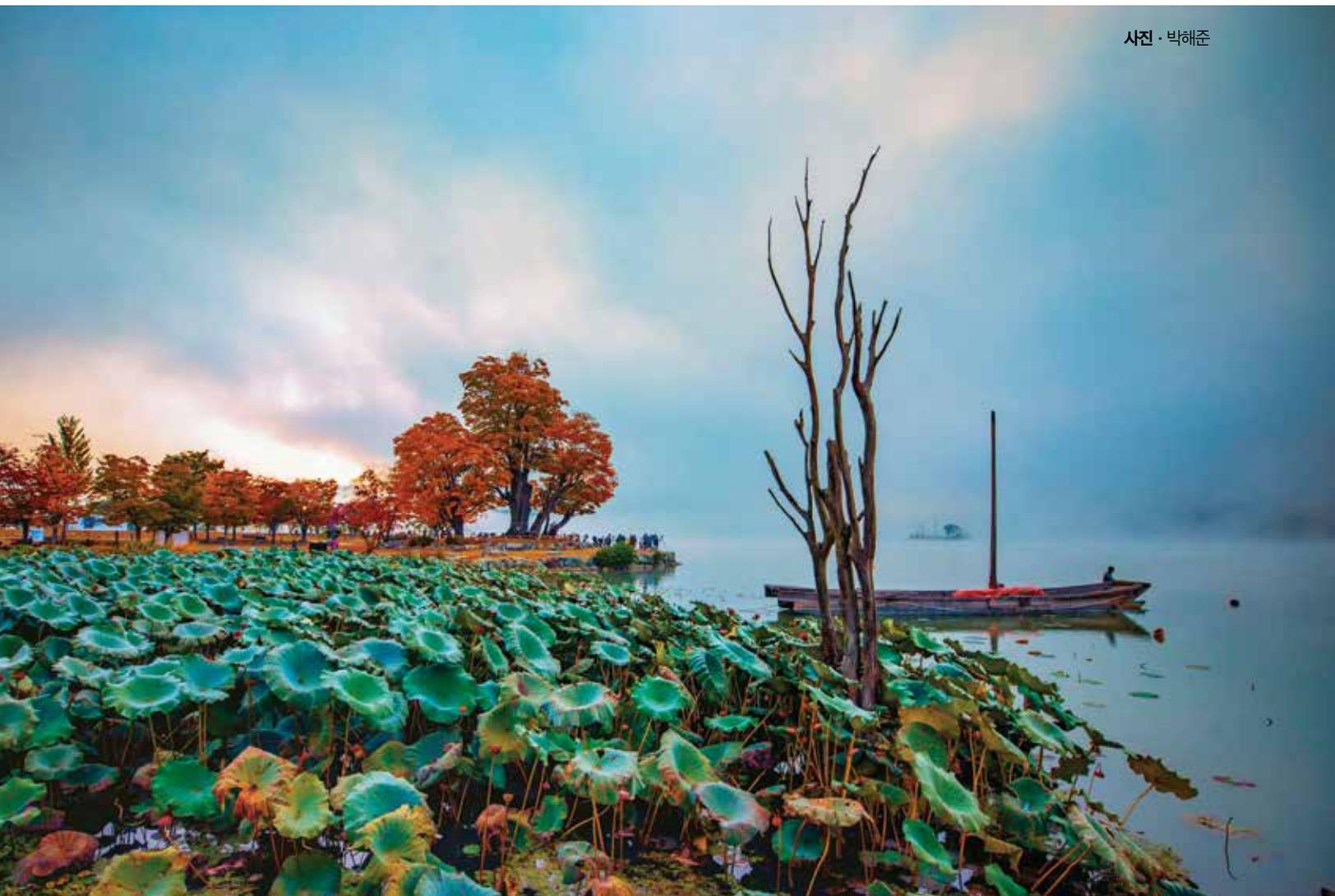
나를 접었어야 옳았다
이미 읽은 너의 줄거리를 다시 들추는 일 보다
아직 말하지 못한 내 뒷장을 슬쩍 보여주는 일
실마리는 언제나 내 뒤편이었던 거다

접었던 책장을 펴면서 생각해 본다
다시 펼친 기억들이 그때와 다르다
같은 대본을 쥐고서 우리는
어쩌서 서로 다른 줄거리를 가지게 되었을까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리는* 진실들이
우리의 페이지 속에는 가득하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변용

사진 · 박해준





겨자씨.

C.O.N.T.E.N.T.S

- 02 PROLOGUE
접는다는 것
- 04 목양실 편지 | 정성진 위임목사
은퇴를 앞두고
-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윤후명
나의 '정한' 나무
- 07 2019 AUTUMN Special Theme
듣고 행하며
- 08 테마 포커스 | 해피월드복지재단
사랑의 날실과 나눔의 씨실을 엮어
희망을 심다
- 14 테마 인터뷰 | 광승현 목사
"그 마른 막대기처럼
나는 나에게 편한 자리를 쓴다"
- 18 선교지 밀알 | 베트남 참조은광성교회
심장병 환자 250명 새 생명을 얻다
- 20 희망나눔 |
김성자 거룩한빛광성교회 미용선교팀장
섬 · 도서지방 · 작은 교회로,
찾아가는 미용실
- 22 거룩한빛운정교회 | 공홀팀
마음까지 나누는 딸, 아들 되고 싶어
- 24 거룩한빛운정교회 ① | 장점 많은 치어리딩
'자신감도 키우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 26 거룩한빛운정교회② | 작은 악기로 전하는 기쁨
배움터에서 선교단까지 두드림하모나카선교회
- 28 10월의 향기 | 최형만 전도사
랍비
-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한국 교회 최후의 보루, 평양 산정현교회
- 32 성경 속 인물 초대
베드로를 인도한 사도 안드레 (Andrew)
- 33 2019 특별기획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④
줄리아 마틴
사람은 누구나 고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 39 지혜의 창
심장 박동수를 느끼게 하는 사람
- 40 우리들의 꿈터
사랑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 42 청년 광장 | 청년 5인 토론
청년의 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 46 함께 읽고 싶은 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자
- 48 WE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로운 청년 김성실
- 50 내 삶의 멘토
스쳐가는 모든 인연이 멘토
- 51 문화산책
- 52 마음이 머무는 갤러리
가을 숲
- 53 찾잔 속의 꽃향기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의 꽃,
천일홍 꽃차
- 54 수필
불청객
- 56 강혜미 기자의 MOVIE
공감의 힘을 가진 오락 영화의 끝판왕
엑시트
- 58 여행, 스토리를 담다 | 부다페스트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제 몫의 불빛을 들고
- 60 BOOK AND BOOK
- 61 정성진 목사 신간
- 62 세금 상식
1세대 1주택 비과세
- 65 정성진 위임목사 은퇴 특집
我死教會生
김정환 목사, 김창인 목사, 김수현 목사,
손문영 장로, 김옥현 장로



08



18



표지그림 · 박역철



33



46



CROSSROAD

십자가의 길 선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다윗의 물맷돌 사역
- 통일기도의 집 사역
- 비빌언덕 사역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903-562019 예금주: 크로스로드
문의전화 | 031-929-3377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무실

해마루광성교회 입당예배

지난 9월 1일 드려진 해마루광성교회 입당예배,
통일기도의 집 사역의 중추 역할을 할 해마루광성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스물세 번째 개척교회이기도 하다.





은퇴를 앞두고

글 · 정성진 위임목사

저는 목회에 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노력과 그릇의 크기에 비해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설교와 인격 그리고 리더십, 어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좋은 교회, 바른 교회를 만들고 싶은 마음만큼은 간절했습니다.
개혁(改革)이라는 단어의 한자 의미는 가축을 벗기는 것입니다.
남의 가축을 벗기려고 달려들면 싸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개혁하는 길은 스스로 허물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교회생(我死教會生)을 외치며 23년을 달려왔습니다.

끝까지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며
작아지고,

낮아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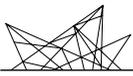
조용히 사라지렵니다.

계속해서 새 목사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 길은 오직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정한' 나무

글 · 윤후명(소설가, 시인)



나타샤는 눈 내리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가난한 시인에게 가고 있다. '아니 올 수 없다'고 기다리는 시인을 아니 찾아갈 리 없는 것이다.

나타샤가 가는 산기슭길에는 '쌀랑쌀랑 소리도 나며 눈을 맞을, 그드물다'는 정한 갈매나무도 서 있다. 나타샤는 당나귀에서 내려 갈매나무에 어깨를 기대고 흰 눈을 바라본다.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

나는 남쪽 땅을 지나며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를 심고자 한다. '모모'처럼 외롭거나 괴로울 때 재스민꽃 희고 향기 짙은 나무는 나의 기도를 듣는다. 나무의 달램을 듣는다. 그러면 대관령 너머 먼먼 북관에서도 청록색 굴은 노랗게 익으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강릉에 작은 집을 한 채 마련하고 내가 처음 한 일은 나무를 심는 일이었다. 굴나무가 아니라도 좋았다. 갈매나무는 물론이려니와 어떤 나무라도 시인이 마가리라고 부른 오막살이에 알맞은 나무면 되었다. 푸른 종이꽃이 바람에 날려 우리 이모들을 부르던 그 냇가에 심은 나무였으니 살구꽃, 복숭아꽃 가슴에 심을 요량이기도 했다.

한방살이를 하던 어린 이모도 이제는 늙었는데 내게 늙었다고 자꾸만 늙었다고 눈길을 주었다. 옛날 집 앞의 자리던 살구나무를 생각하는 것일까.

나는 느닷없이 그 세월을 돌아보았다. 그래서 서울의 집에도 살구나무를 심지 않았던가. 누구나 자기는 생각 않고 남 나이든 것만 눈에 보이는 심리는 변치 않음을 실감해야 했다.

살구나무는 갈매나무도 되며 오렌지나무도 된다. 내 어릴 적 알 수 없는 꿈이 잎 갈피마다 소근 댄다. 무엇이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나 저 오랜 세월을 헤매며 살아왔을까. 내가 쓰는 시와 소설은 무엇일까.

나는 그리움을 말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 시와 소설 속에는 그리움이 자란다고. 그러면 이 나이에도 그러한가. 나는 내 나무에게 묻는다. 대답은 '그렇다'일 수밖에 없다고 나는 스스로 머리를 끄덕인다.

내 길에는 갈매나무도 있고 오렌지나무도 있다. 살구나무도 있다. 내가 자하문 고개에 간직하고 있던 자작나무도 있다. 이들은 모두 그리움을 품고 내게 전해준다. 나무의 모습이 그리움의 모습으로 내게 팔 벌리고 있음을 알겠다.

내 흰 당나귀는 내 나무로부터 '정한' 그리움을 받아 그리움을 알고 '정한' 사랑을 배운다.

오늘밤 나타샤는 아니 올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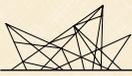
사진 · 박해준

듣고 행하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24





거룩한빛광성교회 복지재단, 해피월드복지재단

사랑의 날실과 나눔의 씨실을 엮어 희망을 심다

취재 · 전영의 / 사진 · 해피월드복지재단



☞ 2012년 킨텍스에서 개최된 해피월드 사회복지포럼에서 발표 중인 정성진 목사. 정성진 목사는 해피월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저신용, 저소득 등의 취약 계층이 재기 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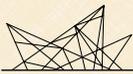
2	3
---	---

1. 2013년 세계 3대 빈민지인 필리핀 톤도 숲 굶는 마을에서 못을 줌은 어린이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정성진 목사
2.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위탁 받아 운영 중인 덕양노인종합복지관의 가족 캠프. 한 해 복지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2,800명 정도이다
3.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는 매년 고양·파주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지원한다. 교인들과 함께 열심히 연탄을 나르고 있는 정성진 목사

교회 개척과 함께 지역 사회 복지 사업을 활발하게 펼쳐 온 정성진 목사. 해피월드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저신용, 저소득층, 새터민,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의 삶을 보듬으며 팍팍한 현실에 희망의 단비가 돼주었다. 그동안 해피월드복지재단을 통하여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을 지원받은 자영업자는 250여 명, 대출 총액은 70억 원이다. 또 1,421명이 갑작스러운 실직, 입원, 재난 등의 위기 때 해피월드복지재단의 도움을 받았고 지원 총액은 7억 8천만 원에 이른다.

고양·파주 고등학생 50여 명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하고, 새꿈터지역아동센터, 고양시다문화가족센터와 복지관 네 곳을 운영하며 어려운 사람들과 지역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걷고 있는 해피월드복지재단.

복지 사업을 흔히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도 한다. 밀이 빠진 항아리 속을 나온 물이 세상 곳곳에 닿아 상처와 절망을 치유하는 생명의 물길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복지에 있어서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어느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사랑의 노래인 듯싶다. 해피월드복지재단이 향하는 곳, 오늘도 누군가의 삶에 새살이 차오른다.



☞ 고양시가족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돌잔치를 열어 준다



☞ 지원 업체를 방문한 해피뱅크 정연위 부장(왼쪽). 해피뱅크에서는 대출뿐만 아니라 경영 전략 및 사업 컨설팅 등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인터뷰 1

해피월드복지재단 초대 이사장 정성진 위임목사

눈물과 기도로 쓴 편지

해피천사운동

두 번의 이혼과 당뇨, 고혈압, 족저근막염 등 여러 질병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던 김○○, 아들의 폭력을 피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지만 생활비가 없어 고민하던 안○○, 가족의 무관심과 희귀질환(CRPS,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고통스러움에 자살을 생각하던 송○○.

삶의 어두운 터널 속에 놓인 사람들, 스스로는 빛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해피천사운동본부가 내민 손길은 터널 밖을 보게 하는 빛이었다. “갑작스러운 실직, 불의의 사고, 재난 등으로 위기를 겪는 교인의 가정 에 긴급생계비, 병원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 구난구호 사업으로 한 가정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비용이 지원되었고 상환의 의무가 없는 순수한 복지였습니다.”

해피천사운동의 시발점을 정성진 목사는 이렇게 회상한다.

해피천사운동본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고양·파주 지역으로 확장하고, 한 가정의 지원 금액을 300만 원으로 제한했다가 최근에는 100만 원으로 내렸다. 올 6월까지 1,421명이 해피천사운동의 혜택을 받았고, 지원 총액은 7억 8천만 원이다. 해피천사운동 후원금은 매월 1,480여 명의 개인 후원자와 삼십여 개 단체의 참여로 형성된다.

제2의 인생 선물한 해피뱅크

“벨트 제조업에 종사하던 K씨는 IMF 외환위기 때 10억 이상 부도가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트럭을 몰고 짬뽕 장사를 하던 중 해피뱅크에서 2,000만원씩 2회 대출을 받아 벨트 사업을 다시 일으켰지요. 그 후 임대아파트를 분양받고, 대출금도 상환 완료했습니다.” 해피월드재단 김종묵 부장은 해피뱅크의 도움으로 재기에 성공한 K씨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피뱅크는 정부의 미소금융사업을 위탁 받아 제도 금융 기관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무담보·무보증 대출을 해 주는 해피월드복지재단의 취약계층 자활·지립 지원 사업이다. 그동안 해피뱅크를 통해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을 지원 받은 자영업자는 250여 명, 대출금은 70억 원이다. 보통 1인당 1회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사업 운영 성적에 따라 2,000만 원을 1회 더 추가 대출받기도 했다.

안타까운 것은 2016년부터 해피뱅크의 대출 사업이 점점 중단되었다. 대출자의 사업 실패, 사망 등으로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보통 40% 정도 되는데 서민금융진흥원(미소금융재단의 변경된 명칭)에서는 이를 금융 손실로 보고 현재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 상태다.

“해피뱅크 대출은 복지 사업인데 이것을 금융 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습니다. 하루 빨리 해피뱅크 사업이 재기되어 취약계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월드복지재단 정연위 부장은 말한다.



☞ 필리핀에 지부를 개설하여 식사·의료·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는 해피월드복지재단



☞ 새터민 자녀와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의 공부방 새꿈터지역아동센터

다문화센터와 복지관 네 곳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노인복지관 두 곳(파주시노인복지관, 덕양노인종합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두 곳(문산종합사회복지관,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 중이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직업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위탁 운영했던 일산다문화지원센터와 누리다문화학교는 2018년 폐쇄하고, 현재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두 곳에서 진행하던 프로그램을 포괄하여 한국 어주민들에게 더 안정적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아, 새터민, 다문화가정, 독거노인처럼 취약 계층을 돌보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라며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복지관 네 곳에 매년 법인 전입금과 해피월드 운영 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해야 하지만 복지관 위탁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나눔·섬김·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하며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또한 교회가 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정성진 목사는 말한다.

타인에겐 긍휼을 자신에겐 엄정했던 23년

거룩한빛광성교회, 장터사회적협동조합, 광성드림학교, 해피월드복지재단. 정성진 목사의 손길이 머문 곳마다 고아와 나그네의 쉼터가 되었고, 장애인, 새터민, 저신용·저소득층 등 취약 계층이 새 삶을 여

는 희망의 발화점이 되고 있다.

세상 어디에도 사랑의 사각지대가 없기를 바라며 교회가 할 수 있는 긍휼 사역은 빠트림 없이 펼쳤지만, 자신에겐 검소하고 엄정했다.

“하나님께서 ‘놓아라!’ 하실 때 다 놓을 수 있을 만큼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잔고를 많이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잘못된 삶입니다. 미리미리 주어야 합니다.”

밤가시마을에 광성교회를 개척한 것이 1997년. 23년이 쏘살같이 흘렀다. 그날의 십자기를 지고 고군분투했던 하루하루는 참으로 길었는데 은퇴가 눈 깜짝할 새 다가왔다.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았는가?’, ‘뜻하지 않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가?’

요즘은 지나온 날을 돌아보는 일이 잦다. 뜨겁지 않은 날이 있었을까? 고일 틈 없이 정신과 의욕과 행함이 함께 흐른다.

‘나의 목표는 오로지 교회이다. 나는 바르게 가고 있는가?’

늘 스스로에게 질문했기에 폭풍우 몰아치는 길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

2019년 11월 24일, 눈물과 기도로 쓴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떠나는 정성진 목사. 일찌감치 설교 강단을 새 담임에게 넘겨주고 교인과 교회의 모든 것에서 자신을 지워가며 마지막까지 아사교회생(我死教會生)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곧 떠나고 보내야 하겠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에 스며든 ‘아사교회생의 빛’은 수많은 ‘아사교회생의 빛’을 낳는 빛의 전령이 될 것이다.

인터뷰 2

새꿈터지역아동센터 장경희 센터장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1. 학생들은 새꿈터에서 부족한 과목을 지도 받고,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하며 꿈을 키운다
2.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 나무와 숲이 주는 유익을 배우며 자연과 교감하는 자연생태 수업

유치원 교사를 꿈꾸는 연아, 검사가 되고 싶은 제인이, 살을 빼겠다고 태권도 학원을 열심히 다니는 규연이, 네일아트와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학생 이○○, 중국어 HSK 5급에 합격하고 6급 준비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김○○.

오늘도 새꿈터지역아동센터(이하 새꿈터)의 아이들이 그리는 꿈의 지도는 푸르다.

새꿈터는 2013년 10명의 새터민 아동과 함께 새터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출발한 후 2017년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 사회 가정의 자녀에게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아동센터로 거듭났다.

현재 새꿈터에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24명이 있다. 학생들은 새꿈터에서 부족한 과목에 대한 학습 지도를 받고, 신문 읽기와 독후감 쓰기 비롯한 다양한 예체능 활동을 하며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초등학생들은 특히 샌드위치, 떡볶이, 떡 등을 만들어 먹는 요리 시간과 근처 공방으로 나가 컵, 꽃, 동물 등을 빚는 도예 활동을 좋아한다.

고등학교 2학년인 김○○이 새꿈터에 온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이다. '과연 학교를 다닐 수 있을까?' 걱정할 정도로 학습, 친구, 사회적 관계 등에 어려움을 보였다.

중국에서 살다 온 김○○이 어느 정도 중국어를 하는 것을 본 새꿈터 선생님은 김○○에게 중국어 HSK 급수 시험 준비를 권유했다. 김○○은 올 6월 HSK 5급에 합격을 했고, 12월까지 6급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 중이다.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것을 보면 참 기쁘지요. 새터민 학생들은 생활 태도, 학습 상태, 습관, 생각 등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장경희 센터장은 말한다.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기가 그렇게도 더디기만 했던 학생들이 이제는 멀리서도 '선생님!' 하고 손을 흔들며 달려온다고 한다. 사랑과 오랜 기다림의 열매이다.

초등학교 2학년 제인의 일기

새콤터 일주일 체육 시간 있는 수요일이 제일 좋아요

글 안제인



☞ 오른쪽 여학생이 2학년 안제인 학생

새콤터에 가는 것은 너무나 신나고 즐겁다. 매일매일 즐거운 프로그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요리, 비즈 공예, 체육 시간……. 국어와 영어는 날마다 한다. 나는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고, 공놀이도 하는 체육 시간이 제일 즐겁다.

월요일

2시에 로스쿨민주시민교육을 하고, 6시에 저녁을 먹고, 6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한다.

화요일

2시에 영어, 4시 30분 요리 수업과 비즈 공예를 한 주씩 돌아가면서 하고, 6시에 저녁을 먹는다.

수요일

2시에 과학 실험, 4시에 체육, 6시에 저녁을 먹고 집에 간다. 나는 수요일이 가장 좋다. 체육 시간이 있기 때문이다. 매주 수요일에 중국어 수업이 있는데 나는 참석을 안 하고 있다. 3학년이 되면 중국어 수업을 꼭 하고 싶다.

목요일

2시에 영어를 하고, 4시 30분에 미술을 하고, 6시에 저녁을 먹고 집에 간다. 다음 주 목요일 스타필드를 가는데 무척 기다려진다. 8월 14일엔 오션윌드를 간다.

금요일

3시에 샌드아트를 하고, 6시에 저녁을 먹고, 6시 30분에 성경 공부를 한다.

해피뱅크에서 대출 받아 재기에 성공한 L씨

내 사업에 천군마마와 같은 미소금융

글 이○○

1997년 겨울 내게 폭풍우가 몰아쳤다. 냉면, 갈비 유통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IMF로 사업이 실패했다. 가정이 풍비박산 나고, 자녀와의 관계도 소원해졌다.

아파트 알뜰시장을 돌며 의류 판매를 하는 지인을 따라다니며 보조 일을 하다 독립을 했다. 처음에는 노점과 두세 곳의 아파트 알뜰시장에 들어가 양말과 잠화(내의류)를 판매하다가 십여 개 이상의 시장을 돌면서 장사를 했다. 십여 년간 한 눈 팔지 않고 달렸고, 서울시 강서구에 30평 규모의 매장과 생활 시설도 겸한 사업장을 7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그런데 그동안 준비한 자금으로는 빠듯하여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다방면으로 수소문했으나, 지난날의 뼈아픈 신용불량 기록 때문에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해피월드복지재단에서 2010년 10월 29일 운영자금을 지원받아 학수고대하던 내 사업장을 갖게 되었고, 2011년 2월 8일 안산시 상록구(1층, 약 50평)로 확장 이전하였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매장 확장에 따른 상품구입 자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해피월드복지재단에 추가 자금 지원에 대하여 문의했더니 그동안 거래 상태 및 사업성이 양호하여 추가 지원을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또 한 번의 천군마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지난날의 아픈 경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사업 운영에 온힘을 쏟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낌없이 지원해 준 미소금융기관과 해피월드복지재단에 기필코 보답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본다. 미소금융 운영기관 및 해피월드 해피뱅크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해피뱅크로부터 2,000만원씩 2회 대출 받아 재기에 성공한 이○○ 씨의 사업장



하나님의 음성 속을 걸으며
 광승현 담임목사

“그 마른 막대기처럼 나는 나에게 편한 자를 쓴다”

취재 · 전영의 / 사진 · 김연철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목사가 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물으신다.

“나를 사랑하니? 나만 바라보니?”

광승현 목사는 하나님의 이 물음이 좋다. 날마다 주님 속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는 나에게 그 마른 막대기처럼 편한 자다.’

산길에서 들려온 주님의 음성. 눈물이 이렇게 뜨거운 것이었나. 광승현 목사는 그날 흘린 눈물의 온도를 잊을 수가 없다.

비워내야 비로소 향기로운 것들 채워 넣을 수 있듯 금그릇, 은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라야 하나님의 식탁에서 쓰임 받고, 그 존재에 빛이 담긴다. 마른 막대기처럼, 비워 깨끗해진 그릇처럼 언제든지 주님 손에 편하게 들려지는 도구, 광승현 목사는 주님께 늘 그런 도구이고 싶다.



※ 광승현 목사 집무실.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액자 속 문장에서 광승현 목사의 목회 정신을 읽을 수 있다

마른 막대기, 네 개의 십자가로 탄생하다

‘주님께는 변함없이,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곽승현 목사의 좌우명이다.
묘비명에 기록되고 싶은 말이기도 하다.



버려진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로

곽승현 목사의 집무실에 들어서면 마른 소나무 가지를 다듬어 만든 네 개의 십자가가 눈에 들어온다. 탁상용 십자가 1개, 벽걸이 십자가 1개, 십자가 목걸이 2개. 탁상용과 벽걸이 십자가에는 ‘버려진 마른 막대기가 주님의 지팡이로, 2018년 6월 20일’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총일교회 담임이었던 2018년 6월 20일, 곽승현 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로부터 한 교회가 자신을 차기 담임목사 후보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몹시 당황했고 혼란스러웠다고 한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저녁 무렵 총일교회 뒷산을 올랐는데 버려진 마른 막대기 가늘게 띄어 주워 지팡이로 삼았다.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곽승현 목사는 하나님께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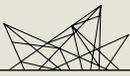
“그 막대기를 짚고 산을 오르니 어떠하냐?”

곽승현 목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렸다.

“편하고 좋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그 막대기처럼 사용했다. 너는 나에게 그 막대기와 같은 존재다.”

“저는 너무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등산용 알루미늄 스틱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총일교회 담임목사로 써 주신 것도 너무



☞ 지난 9월 18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열린 밥 피스메이커 기자회견 및 남북평화기도회

감사하고, 담임 5년 만에 성도 수가 두 배로 부흥한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한국의 대표적 개혁 교회이고 큰 교회인데 제 이름이 불리는 것이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나는 나에게 마른 나무 막대기처럼 편한 자다. 알루미늄 스틱, 그게 더 멋지고 견고하지. 하지만 나는 지금 네가 짚고 있는 그 마른 막대기처럼 나에게 편한 도구를 쓴다.”

곽승현 목사는 평평 울면서 산을 올랐다고 한다. 그날 산길에서 주은 마른 막대기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백향목선교팀의 손에서 네 개의 십자가로 다시 태어나 곽승현 목사의 집무실 책상과 벽면에 자리를 잡았다. 힘들 때 바라보는 네 개의 십자가. 곽승현 목사는 날마다 하나님께 편지를 쓴다.

“주님의 편한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2020년, 다시 거룩한 빛을

“거룩한빛광성교회라는 교회 이름 속에는 정성진 위임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잘 이어서 가지는 의미에서 2020년 거룩한빛광성교회 표어를 ‘다시 거룩한 빛을 비추어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기초하여 2020년 목회 주제를 구상 중인 곽승현 목사.

올 12월 담임목사로서의 목회 직무가 전면적으로 시작된다. 정성진 위임목사의 목회 철학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펼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만만치 않다.

“복음은 변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을 전하는 콘텐츠는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시대와 문화의 변화 속에서 사람들의 관심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달라진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중간 다리로서의 문화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펼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이블 하이킹 3년 프로젝트

4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는 ‘신약 바이블 하이킹’ 16주 여정의 닻이 올랐다. 곽승현 목사는 신약을 펼치기 전 구약의 끝 말라기에서 신약이 완성되기까지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시간’을 먼저 가이드 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는 이땅에 예수님, 즉 메시아가 오게 된 배경과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시류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신약 바이블 하이킹에서는 구약(옛 언약)이 신약(새 언약)에서 성취되고, 성취

2020년 구약 통독, 2021년 신약 통독, 2022년 성지순례.
 바이블 하이킹 3년 프로젝트!
 신구약 통독 마쳐야 성지순례 자격 주어진다.

된 언약이 복음이 되어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약 역시 시대 순으로 재배치하여 성경을 역사 연대기처럼 흐름으로 읽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올해는 신구약 통독을 한 해에 마치지만 내년부터는 좀 다르다.

‘2020년 구약 통독, 2021년 신약 통독, 2022년 성지순례’를 목표로 바이블 하이킹이 3년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직장인도 부담 없이 하이킹 할 수 있도록 달리던 속도를 늦추고, 깊은 골짜기를 지날 때는 굽이치는 산 노을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갈릴리 호숫가에서는 풍랑 일던 밤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경 속 골목골목을 두 발로 걷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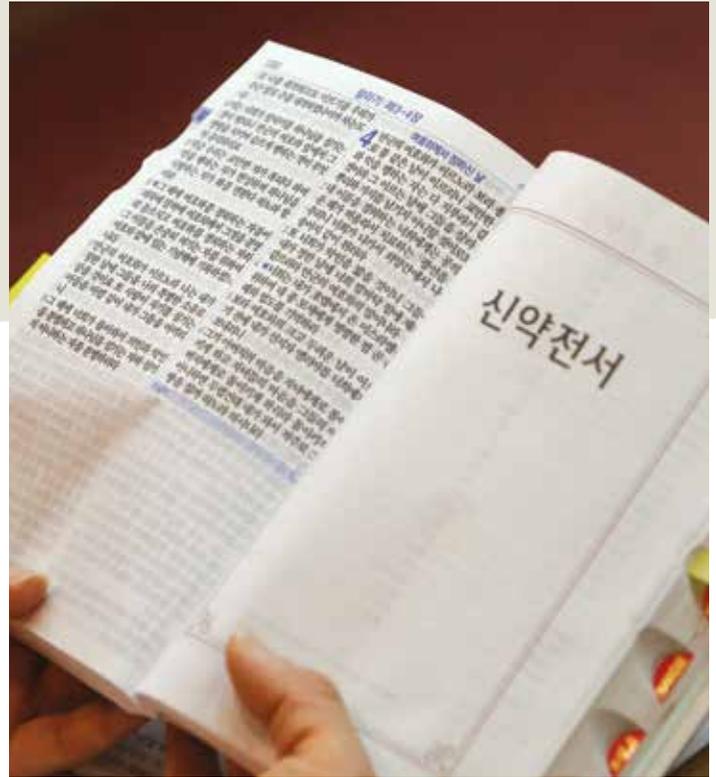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 이것이 광승현 목사가 지향하는 바이블 하이킹이다.

신구약 바이블 하이킹을 수료해야만 성지순례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준비되지 않은 성지순례는 무의미하며, 성지를 찾다니는 것이 성지순례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광승현 목사와 함께 떠나는 바이블 하이킹 3년 프로젝트’, 벌써부터 그 열기가 뜨겁다.

낮은 땅, 그늘진 땅에 핀 꽃의 소명

한국 교회는 성장의 시대를 끝내고 정체화 시기를 넘어 하락의 길을 걷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교회의 보수성, 목회자의 비윤리적 행위, 교회 세습 등이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번듯한 교회를 세워놓으면 사람들이 몰려왔던 적이 있다. 교회를 가면 먹을 것을 주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존경스러운 목회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 교회에서 주던 것들은 이제 세상에서 다 채울 수 있고, 어느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속화의 물



♣ 45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신약바이블 하이킹' 16주 여정의 맛이 올랐다

결은 교회의 경건성과 거룩성을 밀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묻자 광승현 목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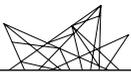
“부흥하는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채우지 못하는 것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부분,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가 있을 때 사람들은 찾아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성도들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답한다.

낮은 땅, 그늘진 땅에 핀 꽃이 마음을 더 울리는 것은 자신을 둘러싼 척박한 환경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녀린 뿌리 끝에서 꽃잎을 길어 올려 낮고 그늘진 땅을 향기로 적셔놓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 그리 녹록지 않지만 거룩한빛광성교회는 낮은 땅, 그늘진 땅에 피는 꽃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광승현 목사는 간절히 소망한다고 한다.

봄 산은 나뭇잎이 많아 배를 부르게 하고, 여름 산은 향기가 좋아 정신을 배부르게 한다고 한다. 단풍에 물들어 가는 가을 산은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는 마음거울이 아닐까 한다. 10월의 문턱에서 가을 산이 묻는 듯하다.

“어떤 빛으로 물들어 가고 있습니까?”



베트남 참조은광성교회,
심장병 수술비 지원 사역

심장병 환자 250명 새 생명을 얻다

글 · 문병수 목사(베트남 참조은광성교회)



라마볼교, 샤머니즘의 나라

첫 팀 선교의 아쉬움

인식년에 한국으로 들어와 신학을 공부하면서 첫 팀의 선교 사역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가지가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하나는, 시골에서 성경한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방을 얻어 주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성경을 가르쳤던 청년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취방에 거주하던 청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자 과연 방세를 내주어야 하는가?가 고민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방세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었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바로 방세를 끊어버리다니…….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집에 거주하는 베트남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는데 그때 '하리는 여자 청년의 친구' 투이도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습니다. 가난했던 투이에게도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투이가 성경 공부를 잘 나오지 않다가 꼭 학비를 내야 할 때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런 투이에게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때 역시 투이의 학비 지원을 멈췄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학비였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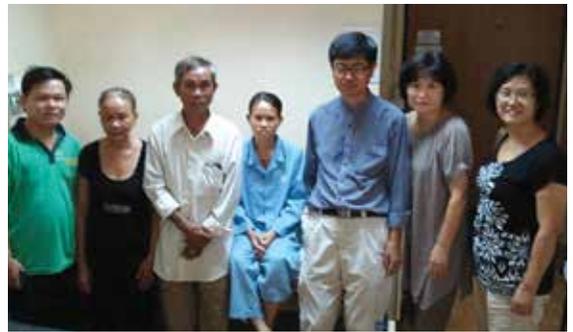
창립 1주년, 심장병 수술비 지원 시작

2012년 다시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집에 거주하던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청년들을 찾았습니다. 대부분의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투이는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투이 청년은 항상 우리 부부에게 마음의 짐이 되고 있었는데 만나지 못하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2013년, 참조은광성교회 창립 1주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1주년 기념으로 '어떤 선교 사역을 할까?' 논의하다가 부활절에 심장병 환자들의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



☞ 베트남 참조은광성교회 문병수 목사



☞ 참조은광성교회 심장병 환자 수술비 지원 첫 대상자 투이 사모, 투이는 현재 전도사 사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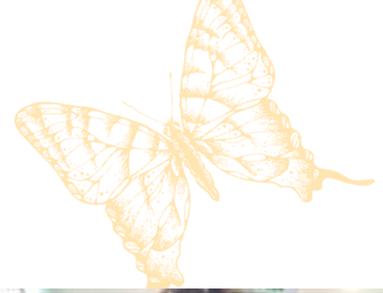


절에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여 운영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베트남 목사님께 '심장병 환자의 수술비 지원 계획'을 이야기 하고 수술 환자를 추천받기로 했습니다. 그때가 2013년 1월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이 다가오도록 베트남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심장병 수술 환자 추천을 재촉하였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베트남교회총회에 이야기 했으니 곧 연락이 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수술비 지원 첫 대상자 '투이'

그 후 1주일 만에 연락이 왔고, 심장병 수술을 환자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던 투이였습니다. 투이는 아마 우리 부부를 생각도 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작은 학비 지원을 중단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들어와서 다시 만나고 싶어서 여러 청년들에게 물어봤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속에 주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참조은광성교회의 심장병 수술비 지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참조은광성교회가 존재하는 한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렇게 만나고 싶은 투이를 하나님께서 못 만나게 하신 것은 참조은광성교회의 의료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후에 깨달았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참조은광성교회는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5년 동안 심장병 환자 50명의 수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7년 6월, 함께 동역하는 의료 선교사님이 의대 병원에 갔다가 코디네이터로부터 돈이 없어서 심장병 수술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년에 15명 정도를 지원해 주니까 300명이 모두 수술을 받으려면 20년을 기다려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의료 선교사님은 2017년 말까지 100명을 채우자고 교회에서 광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4년에 50명을 도와주었는데, 6개월 동안 어떻게 50명의 수술비를 지원하겠는가?’ 하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그 뒤로 심장병 수술 환자를 돕겠다는 연락이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심장병 환자의 수술비를 모금해서 2017년 12월에 100명의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6개월 만에 50명에게 수술비를 지원해 준 것입니다. 2018년에는 100명, 2019년 9월까지 250명의 수술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 심장병 수술을 받은 어린이. 귀가 아픈 이 어린이가 맘 편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참조은광성교회에서는 이비인후과 치료비도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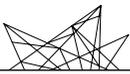
☞ 심장병 어린이 초청 잔치. 함께 놀이공원으로 나들이를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238번째 수술비 지원을 받은 '니'



☞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후원 심장병 어린이이 심방



11년 미용봉사

거룩한빛광성교회 김성자 미용선교팀장

섬·도서지방·작은 교회로, 찾아가는 미용실

취재 · 김용기 / 사진 · 박승언, 미용선교팀



« 젊은미용 봉사자의 참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는 김성자 미용선교팀장

미용 기술로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아름미용실

“몸은 다소 힘들지만 재능을 이용해 선교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주일과 수요일만 문을 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아름미용실 김성자 팀장은 “시간이 없어 원하시는 분들을 다 받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쉽다.”고 한다. 아름미용실은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30분, 그리고 수요일 오전 10~12시에만 문을 연다. 선교 목적으로 결성된 미용선교팀이기에 영리적인 영업은 전혀 하지 않는다. 때문에 미용실의 고객은 교회의 소개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와 새터민, 싸고 미용을 잘 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지역 사람들이다.

“미리 예약을 받고, 손님을 많이 받으려하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정성을 들여 미용을 해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주 가끔은 우리 교인들도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재료를 받고 해 드리고 있어요.”

교회 내 선교 단체와 연합 선교 활발히 진행

미용선교팀은 교회에서 직접 미용실을 운영하는 시간이 적은 대신 정기적으로 외부 봉사를 나가고 있다. 작은교회살리기팀, 북한선교팀, 국내선교팀, 의료선교팀, 병원선교팀 같은 교회 내 선교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해 연합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은교회살리기팀의 요청이 가장 많은 편이에요. 교인들이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왔다가도 금방 떠나는 작은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미용을 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 목사님들께서 무척 고마워해요.”

미용선교팀 봉사자들은 6~7명이 한 팀을 이뤄 파주, 시흥 등 인근 지역의 작은 교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미용 봉사를 해 주고 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국내선교팀이 마련한 여름철 농촌교회세우기 봉사에 참여해 충남 태안군 안면도 창기리교회에서 주민들의 머리를 예쁘게 손질해 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5년부터는 자비량 미용 봉사도 시작해 전남 신안군에 있는 흥도

※ 거룩한빛광성교회 국내선교팀이 지난 7월 28일~31일 충남 태안 안면도 창기리교회에서 실시한 2019년 농촌교회 세우기 봉사에서 미용선교팀 봉사자들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미용봉사를 하고 있다





㉞ 작은교회살리기 봉사에 참여해 파주 중앙침례교회에서 미용 봉사를 하고 있다



㉞ 자비량 선교에 나선 미용선교팀 팀원들이 전남 신안군 흰돌감리교회에서 주민들의 머리를 손질하고 있다

흰돌감리교회를 방문해 주민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기도 했다.

“홍도에는 240명 정도의 주민이 사는데 미용실이 없어요. 15년 전부터 자비량 미용 선교를 해 오신 권사님의 요청으로 미용봉사팀을 꾸려 지원에 나섰어요. 멀리 있고 힘들지만 4년째 하니 이제는 주민들과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친근해요. 그 결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하나둘 생기니 더 이상 바랄게 없어요.”

미용 수요 많아 젊은 봉사자 참여 절실

미용선교팀은 거룩한빛광성교회 봉사선교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하다. 지난 2002년 교회가 밤가시마을에 있을 때부터 미용에 재능을 가진 권사님들이 모여 선교를 목적으로 미용 봉사를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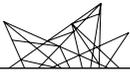
미용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는 일정한 장소도 없이 미용 도구를 가지고 필요로 하는 인근 지역을 다니며 봉사를 했다.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의 자리로 옮겨오고부터는 지하 1층 맛나와 메추라기 옆에 어엿한 아름미용실을 차리고 봉사를 지속해오고 있다.

“가장 역사가 깊은 만큼 봉사에 대한 책임감도 있어요. 지금보다 많은 봉사자가 참여해서 미용실이 쉬는 날 없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올해로 11년째 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 김성자 팀장은 “미용 봉사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는데 봉사자가 부족하고 권사님들의 연세가 높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젊은 봉사자들이 들어와 미용 봉사가 더욱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지하 1층에 자리한 아름미용실에서 팀원들이 찾아온 손님들의 머리를 다듬고 있다



산내마을 1단지 독거노인 스물네 가정에 반찬 나누는 공홀팀

마음까지 나누는 딸, 아들 되고 싶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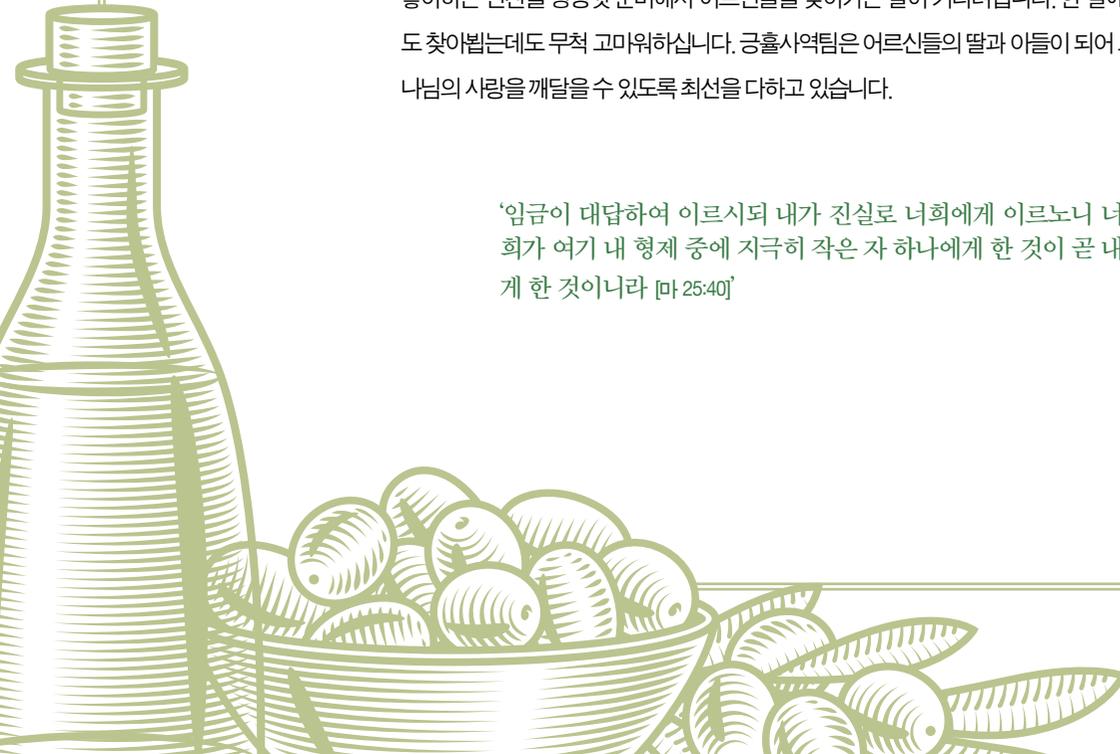
글 · 지용식 사회선교팀장

공홀팀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을 시작한지는 어느덧 두 달. 올 초 정시문 목사님으로부터 공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몇몇 분을 제외하고는 '교회에서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마음이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펼치는 공홀 사역은 쌀, 김치, 김, 육류 등을 정해진 날짜에 독거노인과 취약 계층의 가정에 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필요치 않은 것을 일방적으로 줄 수도 있고, 가족 수에 비해 너무 많이 또 적게 드리게 돼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거룩한빛운정교회 공홀 사역은 반찬과 물품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성도가 1:1로 결연을 맺어 삶을 나누고, 더 나아가 믿지 않는 분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은 교회 근처 산내마을 1단지 독거노인 스물네 가정입니다. 보통 70-90세의 고령이십니다.

산내마을 1단지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 그 곁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간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지만 한 분 한 분 일대일로 만나 보면서 마음의 어려움, 상처, 외로움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해서 어르신들을 찾아가는 날이 기다려집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찾아뵙는데도 무척 고마워하십니다. 공홀사역팀은 어르신들의 딸과 아들이 되어 그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홍순희 권사와 천금순 어르신



천금순 어르신께서는 홍순희 권사를 '딸'로 부르고 싶다고 하십니다



홍순희 권사가 천금순 어르신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쓴 편지와 선물



- 1
- 2
- 3
- 4



1. 거룩한빛운정교회 공홈
2. 남궁숙 권사와 정복순 어르신 반찬만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딸처럼 살갑게 어께도 주물러 드리고 함께 정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3. 어르신 맥 첫 방문 때 들고 간 김치, 김치는 차윤석 집사가 제공했습니다
4.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하여 한 달에 두 번 반찬도 나누고 말벗이 되어드립니다

거룩한빛운정교회 배움터 ①



장점 많은 치어리딩

‘자신감도 키우고 선교도 할 수 있어요’

치어리딩을 흔히 미식축구, 농구 등을 할 때 동작을 하며 분위기를 돋우는 응원단 정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최근 치어리딩은 운동 경기 중간 응원하는 것 뿐 아니라 학교생활 스포츠로 자리 잡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은 학생이 접하고 있으며, 대학에 치어리딩학과도 생겼다. 운정교회 배움터에서는 올해 3월부터 수업이 시작되었다. 일곱 살부터 6학년까지 약 스물한 명의 아이들이 새로운 동작을 배우기 위해 땀을 흘리고 협동심도 배운다. 다리를 짝짝 뺀 아이들도, 아직 동작이 그저 신기한 아이들도 있다. 동작 익히기에 열심인 치어리딩 배움터에 다녀왔다.



자존감과 협동심 키우는 운동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치어리딩'은 전혀 낯선 단어가 아니다. 방과 후 수업으로 치어리딩을 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 초등학생은 방과 후 수업으로 많이 배우고, 중학생 이상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수업을 접한다. 학생 수업뿐 아니라 사회 스포츠 종목으로 점점 자리를 잡고 있다. 치어리딩 세계 대회를 위해 각국의 많은 국가대표가 뽑히고, 일본이나 미국은 중학교 정규 수업에 있을 정도다. 올 3월부터 윤정교회 아이들에게 치어리딩 수업을 하고 있는 김윤희 선생님은 치어리딩이 장점이 많은 운동이라고 한다.

“치어를 하게 되면 유연성이 향상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무대에 오르게 되면 그 희열을 알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협동심도 생각하고 절도 있는 동작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많습니다.”

치어를 간혹 방송 댄스와 비교를 하기도 하는데, 방송 댄스는 웨이브를 주는 동작이 많은데 치어는 끊어지는 동작이 많다는 설명이다.

치어리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 체력. 기초 체력이 부족한 아이들 중에는 처음에 힘들어 하는 아이들도 꽤 있다. 다치지 않도록 열심히 준비 운동 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초부터 천천히 난이도를 높여간다. 이와 함께 치어리딩의 한 종류인 액션 치어를 배우고 익히는 수업과 연습이 진행된다.

“아이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치어리딩에 도전하는 이유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는 재미와 혼자가 아닌 함께 이루어나가는 성취감 때문입니다.” 이전에 접했던 흔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배우면서 새롭고 신기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 또 실력이 향상되면 그만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 초등학교 3학년인 한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체력 훈련과 유연성 기르는 것이 힘들었지만 언니들이 잘하는 것을 보며 '나도 저런 멋진 동작을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에 열심히 하게 돼요.”

또 다른 아이는 무엇보다 '함께 해냈다'라는 마음이 어려운 과정을 잘 견디게 한다고 대답했다.

치어리딩으로 전도할 기회

“엄마 껌딱지라고 할 정도로 붙어 다니는 아이가 자신감도 생기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아이가 됩니다. 유연성이 부족한 아이는 유연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체력이 많이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간혹 살이 빠졌다는 소리도 하고요.”

윤정교회 치어리딩 수업은 토요일 오전에 진행된다. 아이들에게 치어 수업을 하는 것이 재미있다는 김윤희 선생님은 대학 2학년 때부터 치어 활동을 한 치어리딩 전문가다. 육아로 인해 잠시 쉬는 기간이 있었지만, 6년 전부터 다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클럽 팀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정교회 치어팀은 얼마 전 문화센터 합창단 치어팀 동아리와 함께 교도소 사역을 다녀오기도 했다. 아이들의 실력이 나아지면 선교 공연도 나갈 계획이다.

“치어가 격한 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교와 무료봉사를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치어로 선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율동으로 선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워십처럼 몸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워십보다는 좀 더 동적으로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면 쉽다.

“함께 땀을 흘리며 부딪치다 보면 아이들 관계가 더 좋아져요. 힘들 때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 힘들다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서로 힘이 돼 줄 수 있는 것은 쉽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치어팀은 12월 봉헌송 계획이 잡혀있다. 봉헌송 이후 치어 선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아이들이 치어를 통해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모든 성도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거룩한빛운정교회 배움터 ②



작은 악기로 전하는 기쁨

배움터에서 선교단까지 뚜드림하모니카선교회



지난 5월, 운정교회 배움터에서 시작된 하모니카 연주단. 평균 연령이 60대 이상이고, 초급반에는 92세 인 분도 있다. 하모니카를 배운 지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얼마 전 탄현 호스피스 병원에서 연주를 했고 그 후 매달 연주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10~12월 연주 스케줄도 꽉 잡혀있다. 짧은 기간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회원들의 열정 덕분이었다. 많은 회원이 하모니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재미를 느꼈고 어디에서든 쉽게 연주 할 수 있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지금은 하모니카 합주가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기쁘다.

봉사하며 더 큰 감동과 은혜

“예배 봉헌송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심어졌어요. 하모니카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많이 들어왔고 회원들은 칭찬이라는 좋은 보약을 먹은 셈이 된 거죠.”

하모니카 강좌는 전선희 권사의 주도로 지난 5월부터 배움터에서 시작됐다. 전 권사는 어려서부터 하모니카를 연주했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마음에 전문 기관에서 배우기도 했고 연주 생활도 했다.

“처음 하모니카 강좌를 개설했을 때 광성교회 하모니카 팀처럼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배운 지 3개월이 지나고 8월 봉헌송을 하며 회원들이 자신감이 붙었고, 더 많은 선교와 봉사의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하나님님의 역사를 느껴요.”

짧은 기간 회원들의 열정 덕에 많은 발전을 이뤄냈다는 게 전 권사의 평이다.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많은데 열정이 대단하세요. 열정이 뜨겁다 보니 진도가 더 빨리 나가는 느낌도 있습니다. 한 곡을 연습해 오라는 숙제를 드리면 집에서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건지 깜짝 놀랄 정도로 멋진 연주를 보여주세요.” 하모니카 연주의 장점은 악기가 작아 들고 다니며 어디서든 쉽게 연주할 수 있는 점. 폐활량이 좋아지고 뇌 기능에도 좋다. 무엇보다 회원들에게는 찬양의 도구로 쓰인다는 게 더 없이 좋은 점이다. 나이가 많아지면 큰 악기나 찬양단 봉사는 조금 부담스럽지만 하모니카 봉사는 그렇지 않다.

지난 8월, 일곱 명이 탄현 연세메디칼병원에서 연주를 했다. 병원 측에서는 라운지에서 연주해 달라 요청을 했지만, 중환자가 많은 호스피스 병동이라 2인 1조를 이뤄 각 방에서 연주를 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손을 잡고 우는 사람도 있었고,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는 부탁도 받았다. 전 권사에게는 환자들로부터 감사하다는 문자 메시지가 이어졌다.

“하모니카 연주를 들으며 환자들이 마음 문을 여는 모습을 볼 때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느꼈어요(박필녀 단장).”

“환자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김경숙 권사).”

내년 6월 러시아 교회 선교

현재 배움터에는 초급반 여섯 명, 중급반 열한 명이 배우고 있다. 전 권사는 그들이 중급반 수업을 마칠 때쯤 ‘하모니카 선교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활동할 계획이다. 도레미부터 시작했던 초급자가 한 곡을 완주할 정도가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실력이 출중하지 않더라도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하모니카는 공감과 치유의 능력이 있는 악기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하나님께 치유의 역사를 이뤄 달라는 기도를 하면 연주자도 치유가 되는 것 같은 체험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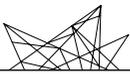
앞으로 계획이 많다. 매달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와 선교를 할 예정이다.

10월 민들레정신병원에서 연주 계획이 잡혀 있고, 12월 초 크리스마스 축제에 참여한다. 내년 6월에는 러시아 연주 계획도 잡혀 있다. 고려인교회라는 곳으로 가 연주하면서, 하모니카를 열 개 정도 구입해 그곳의 교인들에게 나눠주고 연주 방법도 가르쳐 줄 계획이다. 두드림하모니카선교회는 3박 4일의 방문 일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전선희 권사는 조금 더 긴 기간 머무르며 고려인교회 교인들에게 하모니카 연주를 가르쳐 줄 생각이다.

“제가 47년생인데 나이든 사람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겠어요. 하모니카 찬양은 혼자 찬양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기뻐요. 하는데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박필녀 단장).”

“하모니카 선교단 창단 이후 저희가 드리는 하모니카 합주가 더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미천한 실력이 하나님을 전하는 데 도구가 되는 게 너무 기뻐요(김경숙 권사).”





라비 拉飛

글 · 최형만 전도사



여름이면 숙박 때문에 고생이 많다. 호황기에 모두가 휴가를 즐기기 때문이다. 어떤 이에게는 휴가가 쉬를 통한 일보 전진이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휴가가 휴거가 된다. 지인 한 명이 아들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6성급 호텔을 예약해주어 너무나 감격했다고 알려주었다.

부모의 보람이다. 물론 물리적, 물질적인 은혜의 보답만이 보람은 아니지만 힘든 알바를 하면서 부모님 생각에 참았을 지인의 아들이 대견스럽다.

멋진 휴가를 위한 6성급 호텔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 된 성전도 6성급이어야 한다.

여기서 6성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 바로 영성, 인성, 품성,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을 말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더욱 주목을 받는 것은 바로 영성의 시대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성령님과 동행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증언하며 확증하게 한다. 영성은 거룩한 상식이라고도 한다. 상식을 벗어나는 제멋대로의 영성은 '영성'이다.



인성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책무와 임무이다.

어쩌면 짐승과 인간을 구분하는 가장 큰 구별은

바로 '사고'에 있다.

바른 사고는 바른 성경의 가르침에서 나온다.

바른 사고가 인성의 기초다.

품성

인성이 품어져 나오는 것이 품성이다.

당신은 상, 중, 하 중에 어떤 품성인가?

우리는 제품이 아닌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야 한다.

작품은 또 다른 작품을 남긴다. 아니면 전량 반품해야 한다.



사진 · 박해준

다양성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우리 성도는 지체이다.
 다양한 은사를 통해 몸을 세워간다.
 중요한 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하는 것이다.
 정성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진정성'이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정신, 이것이
 다양성에 녹아드는 비결이다.

전문성

다양하지만 전문성을 찾는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부르고 싶다. 소명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
 소명은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다.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필살기다.

창의성

오늘 칼럼이 창의적이지 않은가?
 쉽고 재밌는 생각 말이다.
 창의는 창조 의 패러디다.
 인간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의와 공의는 사회 질서에 꼭 필요하고 창의는
 경제 질서에 꼭 필요하다.
 정의와 공의와 창의를 섞으면 대의(大義)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정의와 공의와 창의(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6성급 성전이다.
 영성, 인성, 품성, 다양성, 전문성, 창의성.



서울 산정현교회 예배 모습

한국 교회 최후의 보루,
평양 산정현교회

글 · 김용기 / 사진 · 평양 산정현교회 제공

고난 속에서 피어난 정금 같은 교회

평양 산정현교회의 역사는 곧 한국 개신교의 역사이기도 하다. 1866년 대동강 변에서 순교한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40-1866) 선교사의 기념 교회로 세워진 최초의 장로교회인 장대현교회(1894년)에서 분립된 형제 교회이다. 1900년대 초 시작된 평양대부흥운동으로 평양 지역 곳곳에 교회가 들어서며 1906년 산정현교회도 설립됐다.

노도와 같은 부흥의 역사 속에 세워진 산정현교회지만 한국 역사의 질곡을 온전히 감당해야 했다. 1910년 일제의 국권찬탈로 나

라 잃은 백성들의 고통과 상실감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살펴야 했다. 방향성을 상실한 채 술과 노름으로 타락해 가는 백성들에게 민족의 자긍심을 일깨워주는 일에도 앞장섰다.

산정현교회의 장로였던 오윤선과 고당 조만식과 같은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3·1 만세운동을 이끌어 민족정신을 되살렸다. 송인·송덕·송현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등 교육 사업에도 적극 나섰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시작된 '토속품 소비운동'도 산정현교회에서 출발했다.



서울 산정현교회의 교인들이 한국 전쟁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와 세운 서울 산정현교회. 서울에는 세 곳의 산정현교회가 있다



1. 1937년 1월 평양 산정현교회 제직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 산정현교회의 모교화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3. 초기 평양 산정현교회의 모습.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4번째 분립한 교회로 제 4교회로 알려졌다. 그러다 산정현에 교회가 건립되면서 산정현교회로 불렸다



2



3

최초의 국산품 애용 운동 전개

일제의 가혹한 수탈에서 살아남고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 고당 조만식 선생이 주창했다. 1920년 산정현교회 장로였던 조만식 선생(1882-1950)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서 시작된 토속품 소비 운동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으며 '물산 장려 운동'으로 확산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품 애용 운동인 물산 장려 운동은 외국산 특히 일본산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 땅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쓰자는 운동이다. 전국으로 퍼진 국산품 애용 운동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있었다.

그 첫째는 의복에 있어 남자는 무명베 두루마기를, 여자는 검정물감을 들인 무명치마를 입는다. 둘째, 설탕, 소금, 과일, 음료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은 모두 국산품을 사용한다. 셋째, 일상 용품은 우리 토산품을 사용하되, 부득이 외국 상품을 사용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실용품을 구매해 가급적 절약을 생활화한다는 것 등이다.

국산 실용품 사용으로 출발한 조선 물산장려 운동

은 금연과 금주 운동, 공창 폐지 운동 등 건전한 생활습관과 사회 정화 운동으로 범위를 넓히며 실질적 애국 운동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믿음 지키

백성들의 항일 운동이 거세지며 1930년대, 그 중심에 있었던 교회와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도 극심해졌다. 가장 큰 사건이 교회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든 신사참배 강요였다. 말을 듣지 않는 교회에 대해 경찰력을 동원해 교회와 학교를 폐쇄하자 1939년 9월 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며 일제에 굴복하는 치욕을 당했다.

하지만, 산정현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주기철 목사(1897~1944)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선도했다. 일제는 눈엣가시와 같았던 주 목사를 다섯 차례나 투옥시키고 온갖 고문을 자행하였지만 끝내 신사참배를 받아들 수 없었다.

주기철 목사는 수감 기간 동안 못이 박힌 널빤지 위를 맨발로 걷는 등 가혹한 고문을 여러 차례 받

아 그 후유증으로 1944년 감옥에서 순교했다. 그는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 없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한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산정현교회 순교 정신 전국으로 확산

주기철 목사의 순교로 지켜냈던 산정현교회의 고난은 끝이 아니었다. 해방과 함께 찾아온 소련의 신탁통치가 시작되면서 교회의 박해는 더욱 혹독해졌다.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세력에 맞서 교회를 지키려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킨 백인숙 전도사(1917-1950)와 같은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제단에 뿌려졌다.

결국 교회를 인민군의 주둔지로 빼앗긴 산정현교회 교인들은 박해와 한국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내려 부산에 산정현교회를 세웠다. 전쟁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온 후에는 서울 회현동, 후암동, 서초동에 산정현교회를 세워 순교 정신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베드로를 인도한 사도

안드레 Andrew

글 · 김은숙

»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고 있다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와 형제로서 갈릴리 벳새 다 출신의 어부였다. 그는 예수를 만나기 전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인물로 베드로를 예수께로 인도한 인물이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라 참차 계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계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_요 1:41-42”

안드레는 기록된 그의 행적으로 보아 욕심이 없고 인정 많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형인 베드로가 전면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동안 그는 조용히 뒤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굶주린 무리와 헬라인들이 예수를 뵈고자 할 때, 그들을 위해 주님께 간청하였으며, 또한 벳새다의 들녘에 모인 오천 명의 무리를 먹이

고자 할 때에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여 그 이적이 이루어지게 한 믿음의 제자도 안드레였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_요 6:8-9”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있었다. 그때에 그 자리에 있던 빌립은 인간적인 사고와 계산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여겼으나, 안드레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천 명이 먹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는 이적이 행해진 것이다.

그도 나약한 인간이었기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을 치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20:19),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했으며(눅 24:50-53), 오순

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체험하였다(행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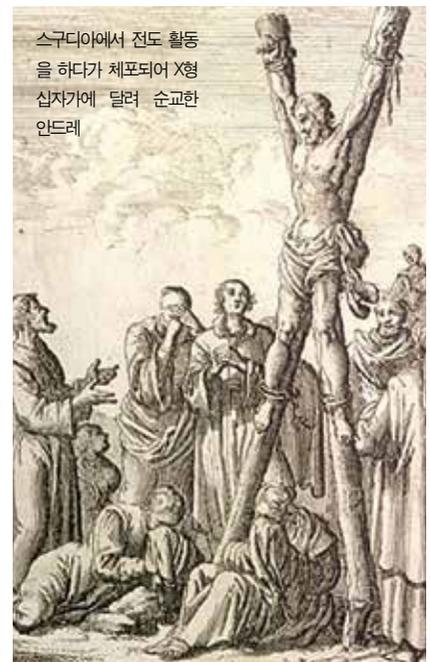
그 후 초대교회 시기인 주후 1C 중반 흑해 부근의 스구디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X

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 고로 X형 십자가는 일명 안드레의 십자가로 불린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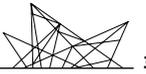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시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를 좇음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_마 16:24-25”라는 말씀과 같이, 자신을 부인하고 끝까지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린 ‘안드레’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 보리개떡 5개와 물고기 20리를 가지고 온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간 안드레



스구디아에서 전도 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X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한 안드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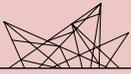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고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줄리아 마틴

Julia A. Martin, 1869-1944

글 · 양국주(서빙더네이션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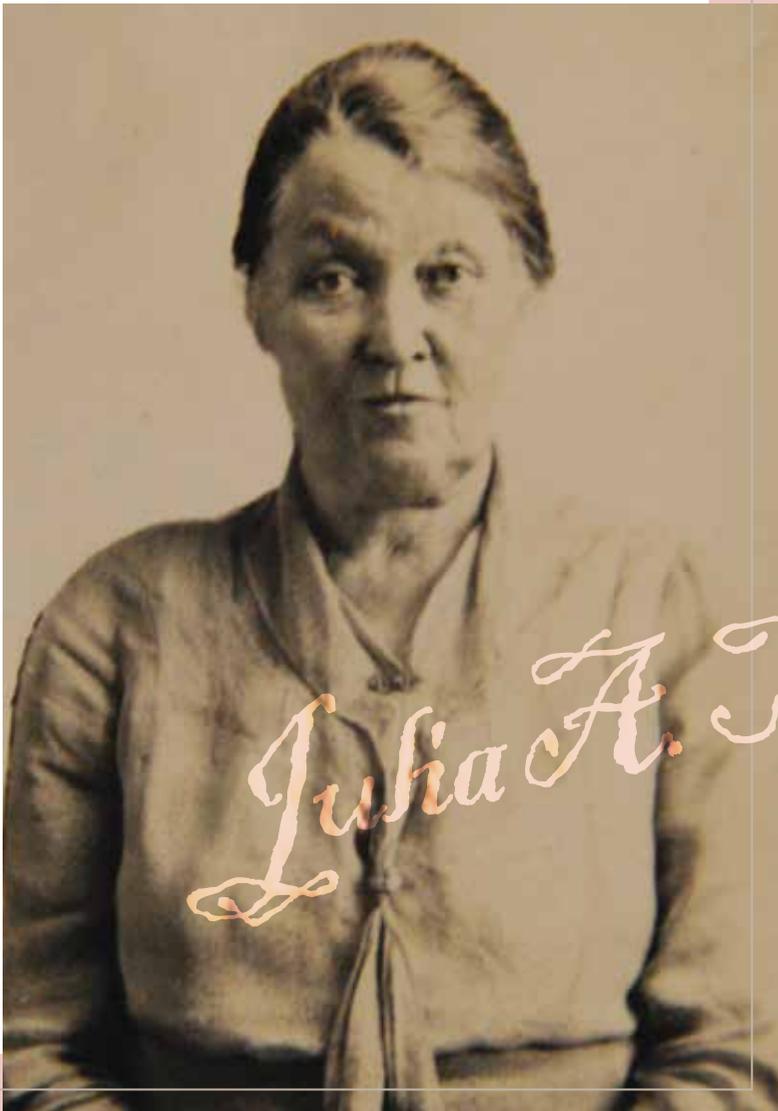
사람은 누구나 고아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이 그러합니다

줄리아 마틴

Julia A. Martin, 1869-1944



글 · 양국주(서빙더네이션스 대표)



« 한국인 조력자, 간호사 등과 함께 진도의 여러 섬을 방문하며 아픈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고 복음을 전한 줄리아 마틴.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 하루에 40명씩 찾아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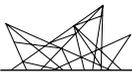
※ 줄리아미션 선교사 조선 선교 25주년을 기념하다. 1934년 3월24일

반평생을 조선에

줄리아미션은 1908년 9월에 우리나라에 와서 1940년에 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33년을 목포 정명여학교 교장을 지내고, 함평과 진도, 신안 등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여성들과 이웃하며 살다간 독신 여성 선교사다. 일흔 다섯 해 삶 가운데 반평생을 조선에 바친 것이다.



※ 1912년 목포에서 사역하던 여성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뒷 줄 맨 오른쪽이 줄리아미션 선교사. 그녀는 일본이 한국과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을 추방할 때까지 전라도에서 사역했다



2019 가을 특별기획 | 한국에 온 여성 선교사④

현재 LA공항에서 5분도 걸리지 않는 잉글우드 묘지에 외롭게 누운 줄리아는 미국으로 돌아와 4년만인 1944년에 영양실조로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한인 교회들이 조상의 산소를 찾듯 해마다 성묘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독일계 미국인 여성 서서평 선교사가 1934년에 영양실조로 죽은 이래 줄리아 마틴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영양실조에는 공통점이 있다. 가난한 조선인들에게 자신의 것을 퍼주어도 모자라 먹을 것이 부족하여 정작 자신이 영양실조에 걸린 탓이다. 아마 그녀가 1941년 일본 정부에 의해 추방되지 않았더라면 마울리(줄리아의 한국 이름) 역시 목포에서 고단했지만 행복했던 조선에서의 삶을 마감했을 것이다.

그는 은퇴 후 마땅히 거처할 곳이 없어 당시 로스앤젤레스에 살던 막내 여동생의 집에 얹혀 살았다. 당시에는 해외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들에 대한 은퇴 이후의 은급(隱給)에 대한 명확한 보장도 없던 시절이라 해외에서 몇 십 년을 살다온들 뽀족한 수가 없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 자신의 젊음을 바친 이들이야말로 훈장 없는 영웅들이 아닐 수 없다.

마울리는 33년의 고단한 삶을 목포와 진도, 함평과 해남 우수영 지역에서 선교 사역으로 지나간 시간을 보낸 분이다. 그는 1910년, 진도를 방문하고 그 감상을 이렇게 기록한다.



◀ 목포 땅에서 33년간 가난한 사람들의 대대로 살았던 줄리아 마틴 선교사. 일흔다섯 해 삶 가운데 반평생을 조선에 바쳤다

진도를 치료하다

백인 여성들이 이 섬을 방문하게 된 것이 최초의 기록일 것이다. 이 섬에 사는 여성들에게 기독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게 된 이후 이들의 반응은 흥분스러울 정도로 구난과 무지한 여성들에게 깊은 갈망을 드러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미신과 무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다. 진도에는 125개의 마을에 3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 동양에 와서 선교사로 일하는 우리는 보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구절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물려들었고 방들은 가득 찼다. 창문과 문 틈새로 그리고 현관 너머 마루에 까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집안에 가득한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도를 기쁨으로 들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슴 벅차게 즐거웠던 일은 나이 많은 여인이 우리가 있는 마을까지 찾아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런 기회를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여성이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의 가장 좋은 특징은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어떤 잘못에 대해서도 관대하고 그들은 자신이 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웃에게 무슨 큰 비밀이라도 되는 양 소곤대며 전하는 것이다. 진도는 섬이지만 넓은 면적이어서 끝에서 끝까지 가려면 약 50킬로(24마일)를 걸어야 한다.

그는 한국인 조력자들과 더불어 여러 마을을 방문했다. 함께 한 맥 켈리 부인은 잘 훈련된 간호사로서 간단한 의약품을 가지고 몸이 아픈 여성들과 아이들을 치료했다. 소문을 듣고 이웃 마을에서 하루에 40명씩 찾아왔다. 그들은 자신의 아픈 몸도 치료받고 복음을 들었다. 내가 진도를 떠날 때 그들은 진도 섬에서 나온 나무로 만든 멋진 지팡이 하나를 선물했다. 그들은 '섬의 곳곳을 다니면서 이 지팡이를 사용하라'고 했다. 그들은 길마다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서 아쉬운 인사를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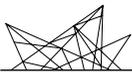


◀ 토렌스 성회장로교회 교인들이 줄리아 마틴 선교사 묘소에 성묘하고 있다. 줄리아 마틴 선교사 묘는 한인 교회 교인들이 조상의 묘를 찾듯 정성스럽게 즐겨 찾는 곳이다

≡ 유달산에 오른 공생원 식구들. 300여 명의 고아들이 함께 생활했던 공생원은 거리를 배회하는 7명의 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것이 시초이다



≡ 목포시 죽교동에 자리한 공생원 전경



소년가장 윤치호와 함께

당시 한국인들에게 진도는 유배지였다. 불모의 땅으로 인생의 막장을 사는 이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줄리아에게는 축복을 전하는 섬이었다.

1924년 마울리가 함평을 방문했을 때 그를 통해 인생이 180도로 뒤바뀐 사람이 청년 윤치호다. 그는 당시 열다섯 살의 나이로 일찍 아버지를 여윈 소년가장이었다.

마울리를 통해 기독교의 복음을 접한 윤치호 집안은 소작으로 생계를 간신히 유지하는 빈농출신이었다. 어린 시절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다. 더욱이 열세 살 때 아버지가 과로로 사망했다. 출지에 소년가장이 된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함평으로 전도 여행을 나선 마울리를 만난 윤치호에게 복음은 새

로운 서광과도 같았다. 한 끼 양식을 때우는 문제가 아닌, 인생 전체를 놓고 어떻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하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것이다.

윤치호가 마울리를 따라 목포로 진출하면서 세운 삶의 공간이 목포시 호남동 18번지에 허름한 초가에서 시작된 '나사렛 목공소'였다. 예수처럼 살겠다며 시작된 목공소는 일하며 배우고 얻은 수입으로 더불어 살던 거리의 아이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 주던 일이 마울리와 윤치호가 목포에서 일하며 나누는 첫 번째 나사렛 공동체였다. 지독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고 스스로 벌여 해결하려는 자세였다.

어린 고아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의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



☞ 줄리아 미션 선교사가 발굴한 소년가장 윤치호와 공생원 원아들. 윤치호는 공생원을 설립해 평생 고아들과 더불어 살았다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는 사람

글 · 한재욱 목사(강남비전교회)



“예전에는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하는 사람이 좋았다.
요즘에는 심장 박동수를 느리게 하는 사람이 좋아졌다.”
노수봉 저(著) 『뜨끈뜨끈 광고 회사인의 메모장』 (북클라우드, 96쪽) 중
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이 있고, 가슴을 잔잔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좋고 필요하지만, 후자에 대한 평가 절하가 많았습니다.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은 깃발을 꽂게끔 돕지만, 가슴을 잔잔하게 하는 사
람은 '풍경'을 보게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작가 알랭 드 보통은 『여행의 기술』 (청미래,
280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느리게 걸으면서 본다고 해도, 세상에는 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진정으로 귀중한 것은 생각하고 보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
기차가 좋은 것은, '앞'을 보여주지 않고 '옆' 풍경을 보여주며 생각에 잠기
게 한다는데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자주 그림에서 떨어져 그
대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 사물의 형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풍
경을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묵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가에서 나온 말인데, 하
나님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마음의 거룩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욕망에 쫓기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을 깊이 생
각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묵상'은 우리가 비뿔과 속도전 속에서 잃어버리
고 있는 세계입니다. 깊은 묵상은 하나님과 나와 이웃과 자연에 대한 풍경
을 보게 합니다. 가슴을 뛰게도 하고 잔잔하게도 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
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 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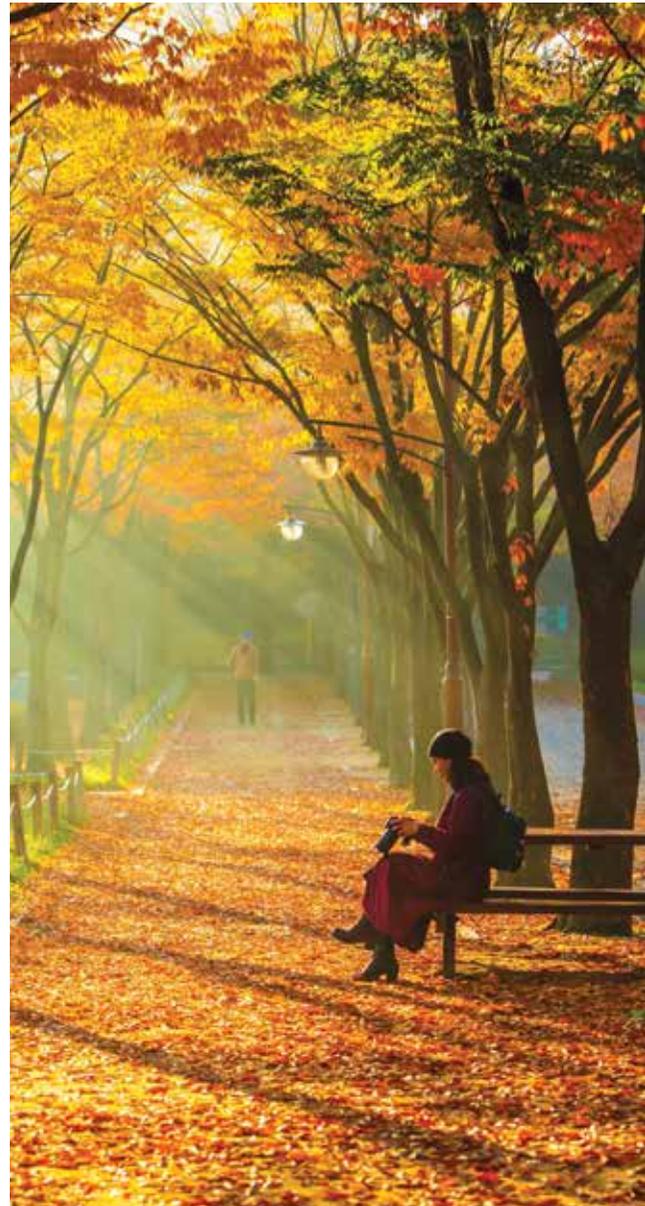


사진 · 박해준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하는

사랑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글 · 박정훈 전도사

여름성경학교 가는 길, 초록의 푸르름이 안정감을 준다

세상만나기 사역의 시작

사랑어린이부의 여름성경학교 준비

지난 7월 13일(토), 광탄면 소령원길에 있는 은평크리스천 쉼터에서 사랑어린이부의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던 5월, 월례회의에서는 여름성경학교를 교회에서 진행할 것인지 외부에서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저는 내심 교회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되기를 바랐지만 선생님들은 외부로 나가 진행하길 바라셨지요. 회의를 마친 후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답사를 갔습니다. 크리스천 쉼터답게 곳곳에 말씀과 십자가가 상징처럼 자리하고 있었고, 넓은 수영장과 잘 정리된 화단이 안정감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걱정스러웠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지고, 기대감이 자리했지요. 선생님들과 장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즐거운 물놀이



☞ 2019 사랑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 '시작과 끝'

☞ 많은 이의 기도로 우리 아이들은 조용히,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장소 예약을 마치고난 후 저녁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상황을 올려 드리며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부서의 선생님들과 이 말씀을 붙들고 여름성경학교가 시작되기 40일 전부터 공통된 기도제목을 가지고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교회학교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사랑어린이부 친구들에게 여름성경학교는 어떻게 기억될까를 늘 고민했습니다. 지루함 없이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교회학교답게 영성이 묻어나는 말씀과 기도회,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민도 시작되었지요. 사랑어린이부 친구들을 떠올리며 일정을 계획하면서 순간순간 제게 편견과 역차별이 자리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예

수님은 언제 알파였고, 오메가인가? 나의 신앙은 언제 시작되었고 어찌 끝나는가?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며 여름성경학교에서 나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긴장감 속에서 감사함으로 마친 예배

하나님께서 사랑어린이에게 주신 말씀은 B,C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과 마지막인 말라기 4장 5-6절, A,D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0-21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전했습니다. 사랑어린이부 친구들과의 예배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감돌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게도 두 번의 예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친구들은 교회학교에서도 가장 작은 부서에서 조용히, 느리지만 천천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천국 잔치

우리 친구들은 감각에 민감하여 물놀이를 무척 좋아합니다. 여름성경학교 중에 진행된 물놀이는 그야말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물에서 나올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았지요. 저도 덩달아 물과 한 몸을 이루어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외부에서 진행되었기에 혹여 다치거나 아플까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 탈 없이 끝이났습니다. 식사와 간식도 부족함이 없었고 모두 맛있게 먹

을 수 있었습니다. 마흔여덟 명의 사랑부 가족들이 천국잔치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장로님과 청년들, 교사와 자녀봉사자, 사모들과 교사 자녀들까지 알파와 오메가가 새겨진 똑같은 티셔츠를 입고 함께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障礙)는 한자 그대로 거처적거리고 기능에 방해가 되는 불편하고 힘든 상태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장애(長愛)는 길고 깊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보실 것이 분명하다는 확신이 듭니다. 이러한 장애인들이 우리의 주변에, 나와 함께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1. 긴장감 속에서 드러낸 예배, 다행히 무사히 예배를 마칠 수 있었다

2. 사랑부 가족들이 함께 참여한 우리들의 천국잔치

청년 5인 토론

청년의 때,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것들

- 존중(尊重) : 높이어 귀중하게 대함 -



‘존중의 언어, 세대 간 차이일까?’, ‘성 역할 고정관념, 결여된 존중을 말하다’란 주제로 청년 다섯 명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함께 향기로운 들녘을 이루는 들꽃처럼 가치관과 세대가 다르더라도 존중하며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취재 · 유동규

1. 존중의 언어, 세대 간 차이일까?

하람 :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기성세대의 언행에 존중의 의미가 결여되어 있는 점이 우리가 세대 간 갈등을 경험하는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언행에서 오는 오해나 관계의 상처가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윤 : 저는 학교에서 동료 선생님이 제게 반말로 툭툭 말을 뱉으며 말씀하시는 게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다행히 시간과 관계가 쌓이고 나니 배려하고 챙겨주시는 게 보여요. 심지어 어린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는데도 ‘어린 네가 뭘 안다고!’하는 반응이 전혀 아니었어요. 덕분에 그분에게 있어 반말은 하대와 동의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주원 : 예전 교회에서 봉사할 때였어요. 다른 부서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들어와서 예배당 앞쪽 창고를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보다 어려 보였는지 전도사님께 다짜고짜 “아, 저거 어떻게 열어?”라며 자기 말만 해서 화가 났던 적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이가 어리다고 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본인만 편한 언어를 쓰는 것 같아요.

연우 : 아르바이트 할 때요 예의 없는 어른들이 무척 많아요. 반말을 하거나 “이거 하나!”라는 식으로 말이 짧죠. 자기 자식이라면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까 싶죠.

예담 : 저희 엄마도 뭘 주문할 때 “(손가락에 카드를 끼운 채 손짓하며) 그거 하나 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께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는 손짓이라고 말씀드렸죠. 알겠다고 하셨지만 습관적인 부분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하람 : 저도 비슷한 부분에서 아빠께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부딪친 적이 있어요. 서로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달랐죠. 부모님께서 무슨 말을 해도 형과 제가 그건 아니라고, 무례한 거라고 딱 잘라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랑 대화하기가 두렵다고 하시면서 본인의 가치관과 습관이 부정당한 느낌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 죄송했죠. 그렇다고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세대 간 존중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를 우리만 느끼는 건 아니라는 거죠.

◇ 생김새, 키, 생존 방법 모두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며 향기로운 꽃밭을 이루는 들꽃처럼 세대와 가치관이 달라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면 아름다운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윤 : 저희 집도 그래요. 사실 기성세대의 언행에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예민한 의도가 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한 교수님이 요즘 학생들은 상처 받기 쉬운 만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한 것 같다고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 세대가 느끼기에는 지나칠 만큼 조심하는 것 같다고요. 세대의 기준이 정말 다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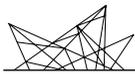
하람 : 맞아요. 그냥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존중의 의미와 언어가 서로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타국의 문화를 대하거나 받아들일 때처럼 기성세대의 존중의 문화를 받아들이면 지금처럼 아예 틀렸다고 밀어내지는 않을지도 모르죠. 물론 완전히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수 있겠지만요.

주원 : 어쩌면 우리 세대가 아예 선을 긋고, 벗어나면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닐까요? 저랑 동생도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여쭙보면 대화가 좀 부드럽게 진행돼요. 보통은 부모님 세대의 경험과 생각들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말씀드려요. 부모님께서 그 변화에 대해 무지한 부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담 : 그런 문제가 가족이 아닌 관계에서는 더 어려워요. 평생 교육시설에서 악기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전 수업에 교실을 사용한 어르신들은 대체로 정리를 안 하세요. 수업이 끝나면 각자 정리해야 하는 데도요. 그나마 저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되어서야 느긋하게 정리하다가 갑자기 사용하시는 악보가 없다고 하시거나. 그 뒤에는 다른 반 어른들이 오셔서 보면 대가 필요하다고 저희 반에서 쓰는 걸 다 가져가셨어요. 사실 개인 물품이 아니니까 상황 설명을 하셨으면 감정 상하지 않고 드렸을 텐데, 당연하다는 듯이 무턱대고 가져가니 언짢았죠.

연우 : 그런데 오히려 저는 학교 동아리 활동을 할 때, 항상 윗기수 팀에게 혼이 났어요. 저희는 항상 악보나 라인을 전부 정리를 하고 갔는데 어질러져있으면 저희가 혼나는 거죠. 열심히 청소했는데 기분이 나빴죠. 사실 같은 공간을 쓰면서 배려하기보다 책임을 미루고 쉽게 비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대를 떠나 모두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담 : 맞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다르지 않다는 게 속상하죠. 청년부 찬양팀에서 사용하지도 않은 악보나 잡동사니에 대해 청년부 예배가 제일 늦게 끝나니까 항상 꾸지람을 들어요. 각자 팀들이 예배 끝나고 깨끗이 정리하고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마지막에 쓴 사람이 다 치워야 한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느꼈죠.

연우 : 답답한 건 이런 문제를 언급했을 때, 정작 문제는 가려지고 권위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다'는 말을 하면 어른들은 대든다고 생각해서 더 말하기 어렵죠.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느껴요. 막상 세대 간의 문제로 단언할 수는 없지만, 애매하네요.

예담 : 그런데 이게 또 직장에서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직장에서 다른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갑을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친구가 작은 무역 회사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매일 점심에 백반을 먹자고 하는 것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점심을 꼭 같이, 그것도 사장님이 먹고 싶은 걸 먹어야 하는데 싫은 티를 내기 어렵다고 해요.

정윤 : 사실 그런 식으로, 회식을 필수로 생각하는 것도

있겠고, 세대 간 직장 문화가 아예 다른 것도 갈등의 원인인 것 같아요. 우리는 워라벨(Work-life-balance,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한 세대잖아요. 그런데 기성세대는 직장과 삶의 구분 없이 회사가 삶이었으니까 우리가 저녁 있는 삶에서 찾고 싶은 가치를 회사에서 찾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연우 : 우리에게 직장은 아무리 좋아서 가도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일 뿐이니깐요. 애사심을 강요하는 사람들과는 회사에 대한 생각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하람 :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처음에 회사를 시작한 다섯 명은 가족 같았고 그 일이 너무 좋아서 뭉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자리를 잡고 난 뒤에 온 사람들은 그 일이 그냥 삶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죠. 직장이 수단인 사람들은 열정적인 사람들의 열심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일이 즐거운 사람들은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모두 같은 세대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걸 어쩌면 세대보다도 직장을 어떤 가치로 대하느냐의 문제겠어요.

≫ 주황등의 다음 신호는 파란불이기도, 빨간불이기도 합니다. 함께 나누는 고민이 멈추지않고 나아감으로 진화되길 기대해 봅니다



2. 성 역할 고정관념, 결여된 존중을 말하다



정윤 : 저는 페미니즘(성 평등 담론)을 얘기할 때 세대차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제 또래가 '여자는 원래' 사회적 인정보다 가정 내의 인정에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고 얘기해서 두 시간을 토론한 적이 있어요.

연우 : 사실 우리는 부모님 세대를 보고 자랐잖아요. 고정된 성 역할의 부당함을 깨달은 사람들도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지. 여자가 육아를 더 잘하니 집에 있어야지' 하죠. 또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충격적이죠.

하람 : 한 번은 친구랑 같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가 되게 사람 좋다는 뜻이 "아니, 근데 여자가 그렇게 말라서 애기는 어떻게 낳겠어요?"라는 거예요.

일동 : (경악) 여자가 애 낳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람 : 말도 그렇지만 택시기사의 태도가 더 놀라웠어요. 걱정해 주는 식의 농담이었거든요. 이런 페미니즘 이슈는 처음에 말했던 '존중'에서 뺀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인 여자인 한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받지 못하게 하는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자는 거죠. 위험한 건 여성에게 씌워지는 고정관념에 위치를 한정하거나 하대하는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남성에게도 고정관념은 있죠. 그렇지만 여성에게 주어지는 프레임과는 위험도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윤 : 이렇게 사회에서 부여한 성 역할을 젠더라고 해서, 여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젠더감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젠더감수성과 인성이 별개라고 느낄 때 괴리감이 참 커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교회에서조차 성 역할로 인한 차별이 만연한 것에 대해, 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연우 : 맞아요. '여성스러움'과 '남자다움'에 대한 말을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어요. 오히려 요즘 사회에서 그런 말은 조심스럽단 말이에요. 여성스러운 게 뭔데? 조신하고 얌전하고 침한 거요? 그럼 그냥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당연하다는 듯 성별에 프레임 씌우지 말고.

정윤 : 사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말할 때 남자에게도 차별이 있다고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 한다고 생각해요. 차별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나도 겪었으니 너는 유난떠는 거'라고 말하는 거 같아요.

연우 : 그리고 겪는 차별의 정도가 달라요. 국방의 의무나 경제적 부담감의 성차별도 분명 있지만, 여성은 일상의 안전이나 직업에 있어서도 차별을 느껴요. 강도가 다른데 차별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똑같이 치부하는 건 아쉬워요. 사회에서도 차별이 있지만, 저는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 성 역할과 그로 인한 차별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너무 극명하게 분리하고 있어서 오히려 세상보다 닫혀 있다고 생각해요.

정윤 :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거운 짐은 형제가, 요리는 자매가 하는 것으로 당연히 이분화 되는 프레임에 의문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성은 의자 하나들 힘도 없나요?

하람 :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존중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관계의 벽을 쌓거나 사회적으로는 혐오까지도 이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식해야 할 것들을 덮는 부분이 힘든가 싶고요. 기본적인 대화에서 존중을 느끼지 못하니 그 존재의 가치인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게 가장 힘든가 싶어요. 그리고 변화를 요청하는 목소리에 대해 '굵어 부스럼'이라는, '어려서 못 보는 것'이라는 덮개를 씌우는 사회나 교회가 우릴 힘들게 하는 부분이죠.

터키 성지 순례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자

성지 순례 전 우리 터키 팀은 약 한달 반 동안 사전 모임을 가졌다.

‘취업은 어떡하지?’, ‘내가 가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존감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바닥이었다.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려워지고, 만나도 즐겁게 이야기 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어두운 면을 들리기 싫어 겉으로는 웃었다. 그런 속에서 성지 순례 준비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다.

글 · 엄지윤(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1

✦ 드디어 터키

우리는 여행 일정을 1일 차씩 나누어 방문지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였다. 그 속에서 우리 팀원들은 각자 맡은 임무를 성실히 해냈다. 성지 순례 여행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아모아 알려주는 등 열정을 보여 왔다. 그 에너지 속에서 나도 조금씩 긍정이 싹트며 여행에 대한 마음이 서서히 피어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터키로 출발하였다. 비행기 멀미와 갇힌 공간에 오래 있는 것을 무서워하는 내게 11시간이 넘는 비행은 무척이나 큰 두려움이어서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발 이 성지 순례 속에서 민폐가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터키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바다에서 이스탄불의 번영과 아름다움을 보았다. 보스포루스 해협에서 크루즈를 타고 그 해협 거의 끝까지 갔다 왔는데 사진 찍을 생각도 하지 못했다. 움직이는 크



2



3



4

1.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 입구에서 찍은 단체 사진
2. 데린쿠유 지하도시 지하 2층에서 미로와 같은 여러 갈림길을 통과하여 도착한 지하도시의 예배당. 어떻게 저 작은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박해받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저 지하 땅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다
3. 데린쿠유 지하로 가는 길 중 하나이다. 자세히 보면 저 안쪽에 길이 있다.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것이다. 저 작은 문틈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키가 큰 다른 형제들이 고생 좀 했다
4. 순례 마지막 날 방문한 성소피아성당. 웅장한 중앙 홀과 아치형 돔에 벽들을 깨워 맞춘 정교한 원형 천장이 일품이다

루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경치를 보느라 낮이 나갈 정도였던 거다. 햇살이 비쳐 반짝이는 바다가 얼마나 예쁜지 그저 놀라웠다. 그렇게 우리는 일상에서 빠져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터키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볼 수 있었다. 터키에 도착해서 처음 터키 땅만이 가진 독특한 분위기와 세련미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포함한 우리 팀원 모두 감탄을 연발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十 데린쿠유 예배당

다음으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지하 도시 데린쿠유를 방문하였다.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하기 위해 만들었다던 지하 도시인 데린쿠유. 작은 출입구를 통해 지하 50m까지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계단 폭이 너무나 좁아 키가 작은 나에게도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그렇게 지하 2층에 도착하였다. 그 안에서도 꼬불꼬불 미로 같은 길을 따라 걷다 보니 강당과도 같은 꽤 넓은 공간이 나타났다. 그 곳이 바로 과거 데린쿠유의 예배당이였다.

당시 로마 제국의 종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터이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지하에 숨어 살면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고, 그 어둡고 무서운 곳에서 기도했을 것을 생각하니 한 쪽 가슴이 뭉클하였다.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꽤 오랜 시간 단체 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해안 도로를 따라 한 시간이나 갔음에도 끝없이 보이는 크디큰 에이르디르 호수, 석회 물질 때문에 눈 내린 새하얀 산이 되어버린 히에라폴리스, 터키 땅에서 보는 해질녘 저녁노을 등 나는 주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터키의 땅을 눈에 담고 또 마음에 담아 그 여운을 지금까지 가득 품고 올 수 있어 참 감사하다.

十 바울을 따라가며

우리는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 걸었다. 39도가 넘는 기후였다. 모든 것을 태워 버릴 것 같은 뜨거움 속이었지만 우리들은 작은 그늘을 찾아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다. 바울은 이 길에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한국 땅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전 세계를 통치하시고 터키 땅에도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다. 터키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몇 프로 되지 않는 나라이다. 저녁마다 알라신에게 기도하는 소리와 경전을 읊조리는 중얼거림이 어둠을 가르고 울려 퍼지는 나라이다. 그 속에서 당연히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를 모르고 그 문화 속에서 자연스레 커 갈 아이들의 순수한 얼굴을 보는데 주님의 마음이 전해짐을 느꼈다. 주께서도 이들을 애타게 찾으시며 그들이 돌아오길 안타까운 얼굴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오버랩 되며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경험을 한 순간이었다.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길, 또 우리가 되길, 거룩한빛광성교회 모두가 되길 기도한다.

성지 순례 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주께서 예비하신 직장에 합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께서 선교에 마음을 부어 주시고 시기적절하게 직장을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성지 순례를 허락하신 주님과 날 회복케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 일산 중심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김성실 씨.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고 한다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유로운 청년 김성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 중심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는, 스물일곱 살 김성실입니다. 저는 제 삶의 이유가 되어주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힘쓰고 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취재 · 유동규

생애 첫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청년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보았다.

옛 김성실을 구하십시오

“저는 군대를 다녀온 뒤 약 2년간 우울증을 앓았고, 매일 옥상에 올라가 삶의 끝맺음을 고민했었습니다.”

어떤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었는지 묻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실 씨의 부모님은 엄하시고 삶에 대해 제재가 많으셨다. 군대에 간 이후 자신의 삶을 한 발 떨어져 바라보니 ‘나는 왜 살아왔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이지?’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다고. 하지만 답을 찾지 못했고, 제대 후에는 이전에 즐겁다고 생각했던 것들이나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열정을 품게 했던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절망적이었죠. 하루에 18시간씩 잠만 자고, 깨어나선 잠

이 끝나 버린걸 아쉬워하고, 옥상에 올라가 삶을 정리해 나갔죠. 어머니의 건강이 염려돼서 죽지 못했어요. 다른 건 다 정리했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도피처로 생각한 죽음이 없어지니 우울함은 더 심해졌죠.”

그러던 와중 부모님이 모든 제재를 풀어주셨다. 성실 씨는 친구와 자취를 하게 되었고, 업소 노래방에서 요리를 하는 한편 날마다 술과 자신을 매료시키는 드라마 등을 보며 지냈다고 한다. 채워지지 않는 즐거움을 향해 더 강력한 자극들을 쫓은 결과였다. 하지만 그 삶도 끝은 있었다. 모든 것을 마음대로하며 즐거움을 따라 선택하고 누리고 있을 당시 주변의 소중한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한 것이다.

그는 응급실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부모님이나 세상에서 만들어 놓은 길도 나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지 못했고, 내 즐거움, 나의 만족을 따라 살아간

삶도 결국 나를 살게 하지 못했네. 내 삶에 따라갈 수 있는 매뉴얼은 없는 걸까, 진짜 나를 살리는 만족, 이유는 없는 걸까?’

그러던 중 성경이 떠올랐다. 자신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가장 먼저 배제한 하나님. 그런데 갑자기 성경이 삶의 지침서라는 생각이 든 것이다. 성실 씨는 학교 친구를 통해 캠퍼스 선교 단체에 들어갔고,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 성실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죽으려고 할 때 기도하며 받은 응답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놓아주라고, 부모의 생각과 노력으로 아들의 삶을 이끌어 와서 그런 거니 당신이 아들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맡기라고 하셨다는 기도응답.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새로운 김성실이 걷는 길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는 매일은 어떻게? 성실 씨에게 물어보았다.

“말씀대로 살아 보려고 해요. 성경이 매뉴얼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직장 내에서 전도를 하고 있다는 성실 씨. 첫 직장이기에 갈등도 많이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저 평범하게 회사나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좋은 신입사원이 될까도 했었다고. 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많이 기도했던 덕분이었을까? 함께 일하게 된 동기에게서 같이 교회를 가 보겠냐고 제의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니 어떻게 거부를 할 수 있을까? 성실 씨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길을 마련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데 있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 3:23)’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미운 감정이 들 때도 있고,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구제불능이었던 나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저 영혼도 사용하실 테고, 사랑하실 텐데’라고 생각하면 미워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리고 미워할 것 같으면 사랑하기도 조금 더 수월한 것 같다고 했다.

자유롭고 행복한 믿음의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지 함께 걷는 성도들에게 한 마디 해 달라고 하니 조심스러운 답변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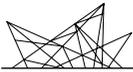
“우선은 참 자유해요. 이전에는 메어있는 것이 많았어요. 관계를 맺는 데 눈치를 본다거나, 나의 결과물을 남과 비교하게 되는 것들이요. 그런데 제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분이 맺어 주신 자녀 된 관계는 끊어질 수 없고 무엇보다 총만해요. 결국 제 행동과 결과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당신을 향하면 되는 거니까요.”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은, 때로는 그 과정의 끝에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시간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승리하는 삶을 살리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증거 하고 있다는 성실 씨. 그 삶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순종과 그에 따라오는 승리가 우연일 수 없음을 체험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권유한다.

“우리 함께 그 삶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신 멩예를 내려놓고 조금 더 자유하고 행복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어요.”



△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룬 김성실 씨와 직장 동료들



스쳐가는 모든 인연이 멘토

글 · 정한나(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 다니엘 김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 저를 점검하고 돌아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동기와 격려를 주시는 감사한 저의 모델링입니다

‘멘토란 무엇일까? 어떤 사람일까?’

‘멘토는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싶었지만 저를 아프게 한 사람도 제게 알려 준 것이 많음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니 스쳐 지나가는 모든 인연이 저의 멘토가 되어 준 것 같습니다. 불편했던 인연도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저를 다듬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들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멘토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니던 제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유는 선한 영향력을 지닌 멘토로부터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마음을 받은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무 자연스러웠던 탓일까요?

그 말씀이 스피치처럼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나눔과 지속적이고 따뜻한 관심을 통해서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수님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반짝반짝 멋지게 보이실까?’라며 그 비결을 무척 궁금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켜보면 교수님은 정말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 주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받은 분은 다니엘 김 선교사님입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은 부활절 집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 여전히 잘 알지 못했고, 세상의 일과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기억되는 날이 있습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을 불러 주셨는데 주님을 향한 그분의 마음 깊은 눈물이 저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나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서, 수많은 멘토와의 인연을 통해서, 저의 상황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게 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사랑을 알려 주기 위해 응답하는 중에 계십니다. 교수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께 받은 마음을 떠올려 보면 그 진심이 여전히 제 가슴으로 전해져 옵니다.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며 서로 더욱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꽃은 지지만 슬퍼하지 않을 이유는 환구하고 신그리운 영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토록 빛을 내는 꽃이 되어요

문화산책





가을 숲

작가노트

어느 가을날, 지리산에 가기 위해 기차를 탔습니다. 구례 역에서 내려 유서 깊은 고택에서 하룻밤 민박하고 다음날 아침 산으로 향하는데 마을이 온통 감나무 천지였습니다. 맑은 햇살에 붉은 감들이 달려 있는 풍경이 그리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론 가을이면 그 마을이 떠오르곤 합니다.

가을의 숲과 감나무의 이미지를 단순하고 편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나무숲의 이미지는 굵은 붓 터치로 처리하고 비어있는 흰 바탕은 시각적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여백의 미로 남겨두었습니다. 가을의 많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상상의 공간으로...



박역철

전)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장
한국 기초조형학회 명예회장
대한민국 정부수여 녹조근정 훈장
현) 한국미술협회 한국화 위원장,
국가보훈 문화예술협회 부이사장

영원히 식지 않는 사랑의 꽃, 천일홍 꽃차

글 · 사진 김규리 성도

천일홍 꽃차 효능

성질은 따뜻하고 향과 맛은 달고 평하다. 간열, 거담, 경풍에 쓰인다.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가 있으며, 기침 천식 갑상선 증, 안과 질환, 두통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 안정 효과로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고도 한다.

강가로 나 있는 길을 걷다가 보라가 섞인 강렬한 천일홍을 만났다. 쪽진 여인의 머리를 연상케 하는 꽃. 7월부터 10월까지 꽃이 피고 꽃말은 '매혹, 변치 않는 사랑'이다. 천일 동안 핀다 하여 천일홍이라 하고 천일초, 천금홍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선 천일홍 꽃을 채취하여 잎을 따고 손질을 하여 고열에서 덫어 준다. 천일홍은 수분이 없고 고열에서 덫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쉽게 만들어 마실 수 있다. 덫고 채반에 꺼내어 식혔다가 다시 덫기를 반복 한다. 수분이 다 날아가면 잠재우기 후, 향 매김 하여 유리병에 보관하며 찻잔에 끓는 물을 붓고 1~2분 기다렸다가 마시면 된다. 찻잔에 어리는 천일홍 꽃차의 매력은 정말로 매혹적이다. 첫사랑 처럼 그 여운이 오래도록 은은하다. 맛이 약간은 밋밋할 수도 있으니 집안 화분에 심어져 있는 로즈마리 한 잎을 생으로 따서 넣어 주면 환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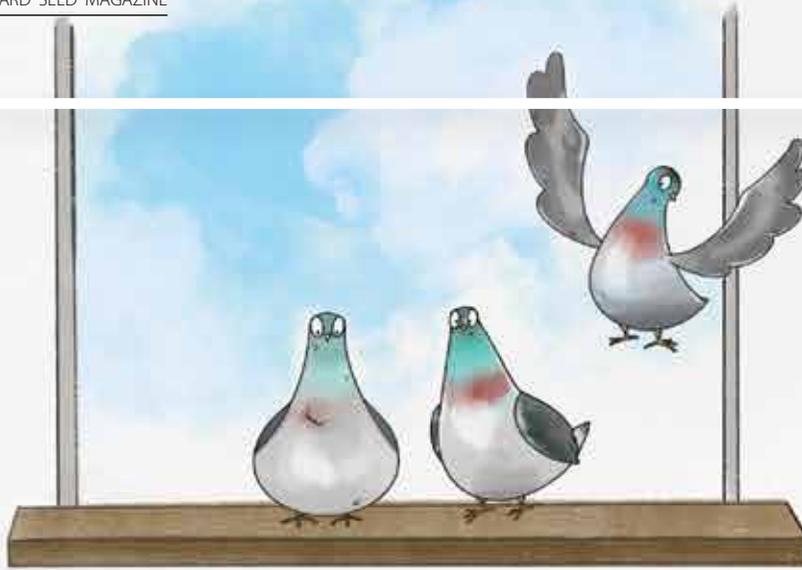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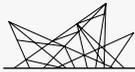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것이 다 다르다. 사랑과 삶 또한 다르지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마음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유치환의 '행복'이란 시의 마지막 연이 가슴에 남는 날이다.

사랑하는 이여 / 그러면 이제 안녕 /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일지라도 / 사랑하였으므로 진정 행복 하였네라

천일홍 꽃차와 어울리는 시가 아닌가 한다.

오늘은 진하게 우려진 천일홍 꽃차 한 잔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





불청객

글 · 김은숙(수필가, 필명 김지형)



그들 한 쌍이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반갑고 신기하여 행여 날아갈세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며 무슨 길조라도 되는 양 수선을 떨었다. 그날 이후 수시로 내 창가에 날아든 그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더니 나중에는 아예 터를 잡고 십여 마리가 제집 드나들 듯 수시로 들락거렸다. 그즈음 아파트 단지 내에 “비둘기나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근래에 어디서 집단 이주라도 해 왔는지 아파트 내에 비둘기 떼가 무리지어 지천으로 날아다녔다.

아침에 눈을 뜨면 비둘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아니 새벽잠을 깨는 것도 ‘꾸룩꾸룩’하는 그들의 울음소리 때문이었다. 그들을 쫓는 게 나의 일과가 되었다. 겨울 추위로 베란다 문을 열 수가 없어 긴 막대기로 유리창을 톡톡 쳐 보았으나 그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궁리 끝에 블라인드 줄을 올렸다 내렸다 했더니 ‘차르르’ 하는 소리에 잠깐 날아갔으나 금세 다시 돌아온다. 나중에는 그것도 면적이 생겼는지 어디 해 바라 하는 식으로 나를 비웃는 듯, 꿈쩍 않고 뒤를 힐끗 돌아보는 놈도 있다. 수시로 물을 한 바가지씩 뿌려 보아도 소용이 없다. 어느 날 헛김에 줄을 세계 잡아당겼더니 와르르하고 블라인드가 통째로 떨어지고 말았다. 매일 스트레스가 더해 갔다.

봄이 되자 아예 창문을 열고 철책을 막대기로 두드려서 쫓았다. 금방 돌아오기는 마찬가지였다. 한번은 바닥에 있는 작은 항아리 속에서 푸드득 하고 두 마리가 날아올라 기절할 뻔한 적도 있었다. 항아리 속에 신방이라도 차렸나! 플라스틱 뚜껑을 어떻게 열고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내 눈앞에서 애정 행각도 거침없이 한다. 주둥이를 서로 비벼대며 붙어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또 삼각관계인지 세 마리가 서로 쪼아대며 격렬하게 싸우고 나면 비둘기 털이 여기저기 날아다니고 아예 뽀뽀한 것털이 바닥에 흩어져 있기도 했다. 배설물이 바닥에 쌓이는 것은 물론 넓은 창문에까지 뿌려 놓기 일쑤였다. 이불 빨래를 널 수도, 고추나 나물을 말릴 수도 없다. 내 땅을 빼앗긴 기분이다. 비둘기가 병도 옮긴다는 뉴스를 본 후 더욱 그들이 끔찍해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그 옛날 ‘시’에 나오는 평화의 새가 아니었다. 인터넷에 ‘비둘기 퇴치법’을 검색해 보니 여러 사례가 올라와 있다.



그물망을 친 경우도 있고, 작은 바늘뿔을 거꾸로 촘촘히 박아서 그들이 발을 못 붙이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한 집도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비둘기와 싸우며 지냈다.

희뿌연게 먼동이 터오는 어느 갓밝이 새벽에 베란다 쪽이 소란스러웠다. 눈을 비비며 창문을 여니 비둘기 예닐곱 마리가 수선을 떠는 게 다른 날 하고는 사뭇 달랐다. 오르락내리락 분주하게 움직인다. 쫓으면 지척 아파트로 날아가서 이쪽만 계속 응시하고 앉아 있다가 채 몇 분도 안 돼서 금시 또 수 마리씩 날아온다.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참다못해 물을 한 들통 들고 베란다 난간에 흠뻑 하게 뿌렸다. 물이 고이면 앉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서다. 그렇게 비둘기를 쫓은 후 돌아서는데 구석에 하얀 빛이 반짝해서 다가가 보니 비둘기 알이었다. 그곳에 알을 낳고 부화시키기 위해 아빠 엄마 삼촌 이모 고모 온 비둘기 가족이 다 출동했던 것이다.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는 축복의 시간이었으나 나는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다. 그대로 있다가는 우리 집이 비둘기 소굴이 될 판이었다. 조심스럽게 알을 들고 물기를 닦은 후 밖으로 나왔다. 할 수만 있다면 그들 앞에 놓아주고 싶었다. 그들은 지금도 건너편 아파트 높은 곳에 앉아 우리 집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는 나는 가까운 풀숲에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들이 알을 발견하고 부화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다음 날 아침 어슴푸레한 미명 속에 잠이 깨어 창 쪽을 바라보니 철책 위에 유난히 몸집이 크고 검은 비둘기 한 마리가 알이 있었던 구석 언저리를 슬픈 듯 굽어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나는 내가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섬뜩하니 온 몸에 소름이 끼쳤다.

다시 잠을 청했으나 머릿속이 어지러운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것은 에드거 앨런 포(Edgar Allen Poe)의 장시 「The Raven(까마귀)」의 음울한 환상이었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버렸다는, 굳이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그 환상 속에 기묘한 정서로 다가왔다. 나는 지금 철책 위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저 비둘기의 존재에 빠져들어 포(Poe)의 시문(詩文)이 내 것이 되어 죄의식으로 불안하기까지 했다. 그날은 두세 마리씩 찾아와 마치 참배하듯 알이 있던 자리를 지켜보다 날아갔다. 나는 그들이 와도 더 이상 쫓을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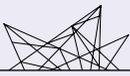
이제 비둘기들은 아예 발길을 끊었다. 건너편 그들이 무리지어 앉았던 곳에도 보이지 않는다. 자기들의 종족 번식을 방해한 못된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이라고 사발통문이라도 돌렸나? 다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성가시던 비둘기들이 보이지 않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무겁고, 길 가다 그들의 종족을 만나면 괜히 두려움이 앞서서 피해 간다.

지난 2년간 불청객 비둘기와의 전쟁은 그렇게 끝이 났다.

텅 빈 베란다에 초가을 햇살이 따갑게 쏟아진다.



일러스트 · 장예지



공감의 힘을 가진
오락 영화의 끝판왕

엑시트

글 · 강혜미

이 영화의 주인공 용남은 대학 시절 산악부 동아리에 열심이었다. 오직 클라이밍에만 매달렸던 탓이었을까?

“동아리를 하려면 제대로 된 거, 영양가 있는 걸 해야되지! 산악부가 뭐야, 산악부가! 너 심마니 할 거야?”

누나의 이런 핀잔이 익숙해져버린, 그는 백수다. 백수에게는 일가친척이 모이는 자리가 고역이다. 하지만 어머니의 교회연 덕분에 그 고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던 용남과 용남의 가족은 유독가스 유출 사건과 마주하게 된다. 유독가스는 소량에 노출되어도 곧바로 사망에 이르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다, 도시 전체를 희뿌연 가스로 채워버렸다. 이미 2~3층 높이로 올라선 유독가스를 피해 교회연을 열었던 연회장 건물의 옥상으로 피했지만 옥상문은 굳게 잠겨 있다. 과연 방법은 없는 걸까?

고민하던 순간 용남이 팔을 걷어붙인다. 교회연 연회장의 부지점장으로 있던 산악부 동아리 후배 의주의 도움을 받아 용남은 호기롭게 연회장 건물 외벽을 오르기 시작한다. 용남의 누나가 말했던 '영양가'가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위태로운 순간을 이겨내고 옥상 문을 연 용남 덕분에 가족들은 구조의 기회를 잡게 되지만 한 번의 위기가 더 찾아온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비롯한 어른신들, 어린 조카들을 태우고 나니 구조 헬리콥터가 짝 차버린 것이 아닌가? 결국 용남과 의주만이 옥상에 남겨진다.



구조 헬기를 의연하게 보낸 후 그 둘의 모습은 지나치게 솔직하다. 살고 싶다면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우는 것이 아닌가! 그 어떤 재난 영화의 주인공이 찌질하게 울었던가 말이다. 이 영화는 예상했던 재난 영화와는 결 자체가 다르다. 주인공이 멋지게 사람들을 구하고, 희생을 감수하는 영웅 스토리가 아니다. 그저 어떻게든 살아남고 싶은 주인공의 처절한 생존 스토리다.

그럼에도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을 바라보는 흥행 영화 반열에 오른 것은 무엇 때문일까? 여기에는 '공감'이라는 힘이 숨어 있다. 앞서 용남의 누나가 말했던 것 같이 산악부 동아리의 경험은 이 사회에서 그다지 영양가가 없다. 영양가가 있는 동아리 경험이란 건 취업과 직결되는 경험을 이르는 것일 터. 이를테면 봉사점수 만렙을 찍을 수 있는 동아리, 각종 공모전을 휩쓰는 광고 동아리 같은 경험 말이다. 누구나 대학 시절 캠퍼스의 낭만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취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재가 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기 십상이다. 과연 이 기준과 잣대는 누가 만든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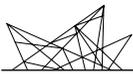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나이든 세대 역시 세상이 정해 놓은 기준과 잣대에 따라 평가를 받아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 잣대가 늘 옳은 것이 아님에도 낮은 평가를 받을 때면 우리의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만다. 스스로 주눅이 들대로 들어 무기력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

용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의 상황에 '공감'한 것이 아닐까? 세상의 잣대를 고스란히 담아 용남을 바라보는 누나의 시선을 우리도 받아 봤으며, 의주에게 백수임을 고백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허세를 부려보는 용남의 모습 또한 우리가 어느 날 어디선가 해 봤던 행동 아니었을까?

그렇게 용남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던 그때, 용남은 반격을 시작한다. 영양가 없을 것 같았던 용남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오고야만 것이다.

오락적 재미가 극대화 되어 있는 영화이면서, 재난 영화이기도 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휴먼 드라마적 요소까지 갖추고 있는 이 영화. 상당히 매력적이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은 없다.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쓸데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지금은 몸을 낮추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각자의 능력이 꼭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이다. 그 순간을 기다리며 힘을 내 보자! 이 영화 역시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회색빛이 매혹적인 부다페스트 크기도 모양도 다르지만 제 몫의 불빛을 들고

글 · 사진 전영의

아시아인들은 헝가리에서 유럽을 보고, 유럽인들은 헝가리에서 아시아를 본다고 한다. 아시아와 유럽이 공존하고 있는 부다페스트. '다뉴브의 진주', '동유럽의 파리'로 불리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은 파리, 프라하와 함께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힌다. 알프스 낮은 산자락에서 발원한 다뉴브 강이 아홉 개국을 적시며 2,850km를 흘러 흑해로 뻗어나가는 동안 가장 아름답게 닿고 있는 부다페스트를 만난다.

☞ 다뉴브 강 어부들의 총정리 깃든 '어부의 요새'. 부다와 페스트 두 도시를 가르는 다뉴브 강과 강물 위에서 두 도시를 잇는 세체니 다리가 한 눈에 들어온다

물의 도시, 부다페스트

다뉴브의 물길이 닿는 아홉 개국 중 가장 아름다워 '다뉴브의 진주'로 꼽히는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에 서면 왜 이 도시가 다뉴브의 진주라 불리는지 금방 실감할 수 있다. 고색창연한 건축물과 천년 역사를 품은 주물들이 그 뜨거웠던 시절의 소리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흐르는 다뉴브 강을 굽어보고 있다. 강물과 어우러진 도시의 빛이 오묘하다.

다뉴브 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두 도시 부다와 페스트. 언덕에 위치한 부다 지역에는 왕과 귀족이 살았고, 페스트는 서민들의 땅이었다. '물'을 뜻하는 부다와 '도시'를 뜻하는 페스트가 합병한 것은 1872년, 두 도시는 다뉴브 강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했다.

프랑스 파리, 체코 프라하의 야경과 함께 '세계 3대 야경'으로 꼽히는 부다페스트의 야경. 밤이 되자 다뉴브 강변의 크고 작은



≧ '어부의 요새' 안쪽 광장에 위치한 마차시 성당. 가톨릭과 이슬람 양식이 혼재된 건축 양식에서 순탄하지 않았던 이곳의 역사가 보인다



건축물들은 일제히 형형색색의 불빛을 들어올렸다. 그중 사람들의 눈길이 쏠리는 곳은 365개의 첨탑을 가진 헝가리 국회의사당. 365개의 첨탑과 웅장한 몸통에서 쏟아진 황금빛 조명은 국회의사당 외벽을 물들이며 물결치듯 유려한 선율로 미끄러져 강물 수면을 적시고 물속으로 하강한다. 물속에서도 빛의 파도가 인다. 크기도 높이도 다 다르지만 모두들 제 몫의 불빛을 들었다. 빛이 어둠을 사른다. 빛에 물든 도시의 얼굴이 곱다. 이럴 때 나도 꺼내들 불빛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부의 요새

부다 언덕에 자리한 '어부의 요새'. 이곳이 요새라니. 요새라는 말을 듣기 전에는 누구도 이곳을 요새라고 생각하기 힘들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하얀 색으로 건축된 요새는 마치 중세 귀족의 성처럼 화려하고 고고하다. 요새 안쪽에 왕들의 대관식이 열렸던 마차시 성당이 하늘 높이 솟아 있다. 가톨릭과 이슬람이 혼재된 건축 양식에서 이곳의 역사가 험난했음을 알 수 있다.

어부의 요새라는 이름은 19세기에 붙여졌다. 강을 건너 기습하는 적을 다뉴브 강의 어부들이 온몸으로 막아 이곳을 지키던 데서 비롯됐다. 어부의 요새, 이 언덕은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선물한다. 발아래 부다페스트를 시원하게 펼쳐놓았다. 다뉴브 강물 위에서 부다와 페스트를 잇고 있는 세체니 다리가 한눈에 들어온다. 다리위를 걷고 있는 여행객들의 설렘이 이 언덕에서도 느껴진다. 세체니 다리 양쪽 초입에 네 마리의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그 중 한 사자상의 입속에 혀가 없는 것을 다리 개통식 날 한 시민이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영화 '글루미 선데이'와 우리나라 TV 드라마 '아이리스'의 촬영지이기도 한 세체니 다리. KAL기 폭파 전 김현희가 이 다리 위에서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갈등했다고도 한다.

군왕의 와인, 황소의 피

헝가리 하면 와인을 빼놓을 수 없다. 토카이 와인과 '황소의 피'라는 별칭을 가진 에그리 비카베르. 두 와인은 모두 전쟁과 관련이 있다.

오스만튀르크와의 전쟁에 참전했던 토카이 지방의 농부들이 수확 시기를 놓쳐 곰팡이가 핀 포도를 짠 것이 토카이 와인의 시초이다. 열은 황금색을 띠는 이 와인을 가리켜 프랑스 루이 15세는 '군왕의 와인, 와인의 군왕'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디저트 와인'이라고 할 만큼 부드럽고 달달하다.

레드 와인인 에그리 비카베르 또한 오스만튀르크와 관련이 있다. 오스만튀르크에게 전세가 밀리자 에게르 지방의 성주는 자신의 술 저장고를 열어 좋은 술과 음식으로 에게르 병사들을 대접했다. 튀르크 군은 에게르 병사들의 턱수염과 옷에 묻은 붉은 와인 자국을 보며 황소의 피를 마신 것이라고 생각하여 겁을 먹고 퇴각했다고 한다. 그 후 에그리 비카베르 와인은 '황소의 피'로 불리었다. '황소의 피'라는 섬뜩한 별칭과는 상반되게 부드러운 타닌감이 오래도록 입안을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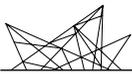
동유럽은 여행 내내 흐린 하늘만 내놓았다. 도시가 주는 빛을 가장 빛나는 컬러로 담지 못해 애가 탔다. 하지만 회색빛에 쌓인 부다페스트는 어떤 컬러를 입은 도시보다도 매력적이었다. 회색빛에 고인 매력을 부다페스트에서 알았다. 부다페스트를 생각하면 칼바람이 얼굴을 할퀴던 어부의 요새와 요새에서 바라본 부다페스트의 회색빛 선율이 다뉴브 강물과 함께 물결쳐 온다.

수많은 생명을 품고 대장정을 펼치는 다뉴브 강물처럼 깊고 넓게 치열할 수는 없을까?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상흔과 만날 시간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는 폴란드로 간다.



≧ 밤이면 365개의 첨탑에서 황금색 불빛을 쏟아내는 헝가리 국회의사당.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세계 3대 야경에 꼽히게 하는 일등공신이다



BOOK AND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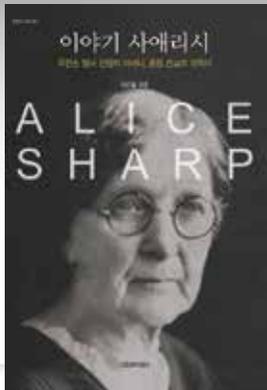
정리 · 강혜미



성경 속 노마드

저자 : 배경락 | 248쪽 | 14,5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전작 『성경 속 왕조실록』을 통해 인문학적 소양과 깊이 있는 성경 해석을 보여 준 배경락 목사의 베드로서에 대한 가르침이다. 성경은 흠어진 나그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저자는 베드로서를 노마드 프리즘으로 재해석하여 선교의 관점에서 현실성 있게 전한다. 베드로서는 박해에 지친 당시의 성도에게 건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그 메시지를 일상의 언어로 보고자 한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 사애리시

저자 : 임연철 | 352쪽 | 18,000원 | 출판사 : 신앙과지성사

미국 감리교 선교사로 충청도 지역 여성 선교의 선구자로 불리는 사애리시. 역시 선교사였던 남편을 여윈 후에도 한국에 남아 전도에 힘썼다. 끼니도 거르며 문맹자들을 위해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그녀의 열정은 우리를 숙연하게 한다. 특히 유관순 열사를 신앙으로 이끈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은퇴 후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을 향한 기도와 후원의 삶을 살았던 그녀의 발자취를 통해 잠시 잊고 있었던 신앙적 사명감이 재충전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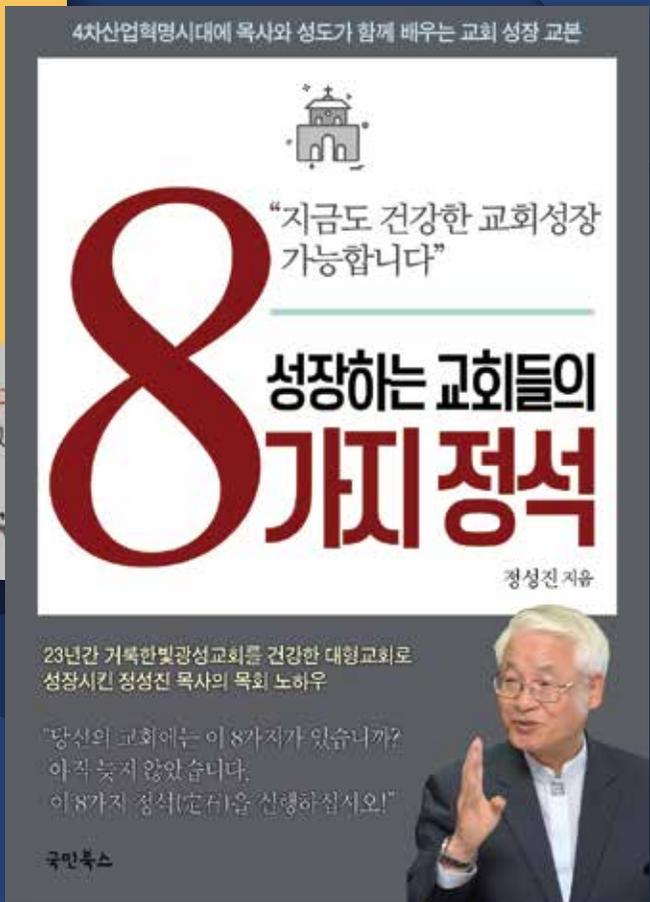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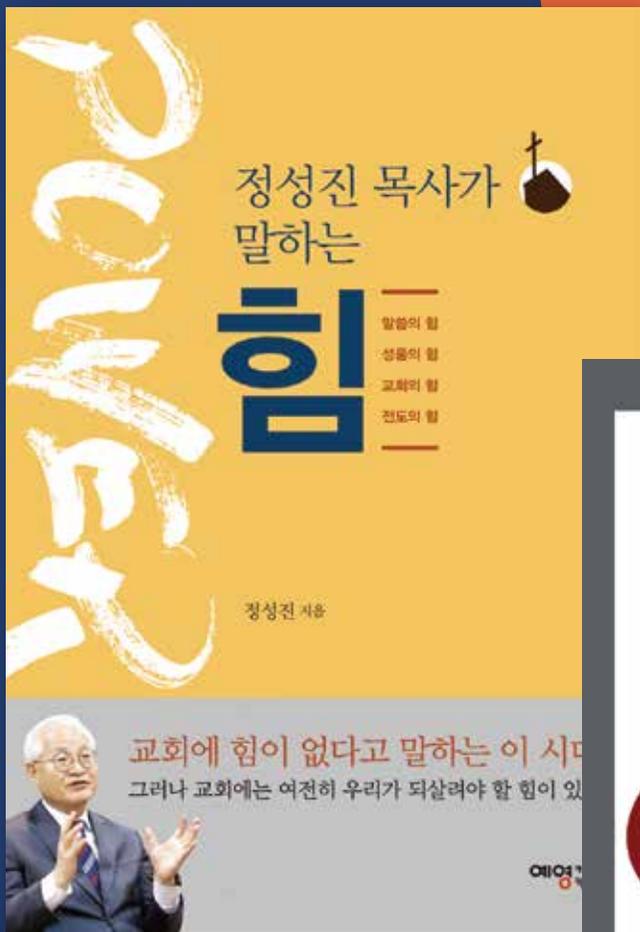


명수필 다시 읽기

저자 : 김지형 | 183쪽 | 12,000원 | 출판사 : 소소리

소설은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결국은 허구이다. 그러나 수필은 다르다. 삶을 살아내며 마주하는 현실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그래서 수필에는 수필만이 가지는 진솔함의 힘이 있다. 이 책은 꼭 읽어볼 만한 명수필을 선별하여 수록했다. 그와 더불어 각 수필에 대한 저자의 해설 및 감상이 더해져 수필이 낯선 이들에게 재미를 불러일으키고, 내용의 이해를 도와 풍성한 삶의 이야기를 온전히 느끼도록 안내한다.

정성진 목사의 신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글 · 모영철 집사(한솔세무회계사무소 대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국내의 1주택(미등기주택 제외, 고가주택 제외)과 이에 딸린 토지(도시지역 내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1. 1세대 요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봅니다.

- ①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③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

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1주택 요건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릅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해당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3.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요건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함은 주택 및 그에 부속되는 토지를 각각 2년 이상 보유한 것을 말합니다.

2019년 7월 현재 조정대상지역(2018. 12. 31. 이후)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하남시, 동탄2택지개발지구,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기흥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

거룩한빛광성교회 분립개척교회와 형제교회

개척교회

	교회명	담임목사	창립일	지역
1	주사랑교회	최정도 목사	2000년 06월 08일	파주시
2	안산광성교회	명 훈 목사	2003년 06월 26일	안산시
3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	2006년 04월 02일	고양시
4	큰빛광성교회	이대성 목사	2007년 01월 21일	고양시
5	물댄동산수림교회	신종렬 목사	2008년 02월 23일	서울시
6	두란노광성교회	박준교 목사	2009년 01월 10일	고양시
7	생명의빛광성교회	이춘태 목사	2009년 03월 08일	서울시
8	은혜광성교회	김혜정 목사	2010년 01월 09일	용인시
9	사랑의빛광성교회	박경환 목사	2010년 03월 06일	대구시
10	행복한광성교회	엄태현 목사	2011년 02월 27일	인천시
11	예수광성교회	박정수 목사	2011년 03월 27일	서울시
12	우리광성교회	박웅기 목사	2011년 01월 16일	고양시
13	하늘빛광성교회	박경수 목사	2015년 01월 25일	고양시
14	사랑드림교회	송영석 목사	2017년 12월 03일	고양시
15	교하광성교회	홍종학 목사	2018년 03월 11일	파주시
16	거룩한빛운정교회	유정상 목사	2018년 12월 02일	파주시
17	거룩한빛시온교회	서동훈 목사	2019년 01월 20일	파주시
18	해마루광성교회	장동훈 목사	2019년 09월 01일	파주시
19	열린광성교회	김광배 목사	2019년 09월 29일	파주시



	교회명	담임목사	부임일	지역
1	덕양중앙교회	이형기 목사	2011년 11월 13일	고양시
2	푸른빛광성교회	문재진 목사	2012년 02월 05일	양주시
3	주만교회	이범주 목사	2013년 11월 24일	인천시
4	밀알교회	신동명 목사	2015년 12월 01일	서울시
5	블로교회	한민수 목사	2016년 05월 29일	인천시
6	동은교회	권대선 목사	2016년 08월 07일	안양시

형제교회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19 AUTUMN
VOL.38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38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정성진

발행일: 2019년 10월 6일

인쇄: 부건프로세스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유동규, 이학명

사진: 박해준, 김연철

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팀장: 전영의

거룩한빛광성교회 은퇴하는 정성진 위임목사

我死教會生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정성진 목사는...

1983년 10월 충청북도 음성군 폐광촌에 자리한 금왕교회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한 정성진 목사. 1986년 신장위교회 교육전도사, 1989년 국방대학원교회 교육전도사, 1990년 봉천제일교회 전임전도사로 헌신하고, 1992년 광성교회(천호동) 부목사로 부임하여 5년 사역 후 1997년 1월 일산에 거룩한빛광성교회를 개척하였다.

‘我生教會死 我死教會生’을 목회 신조로 개척의 문을 열어 목회 내내 ‘내가 살면 교회가 죽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를 외치고 실천했다.

담임목사 6년 임기제를 도입하여 6년마다 재신임을 물었고, 담임목사와 장로 65세 정년제, 원로목사 제도 폐지, 목회자 보너스 폐지, 가용 예산의 51%를 구제와 선교에 사용, 지휘자와 반주자 무 사례 봉사, 명예 장로·권사·집사 제도 폐지 등의 혁신안을 실행하며

한국 교회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23년 목회 기간 동안 스물네 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한 정성진 목사. 새 신자가 등록하지 않은 주일이 없을 만큼 교회는 눈부시게 성장했다. 장터사회적협동조합, 광성드림학교, 해피월드복지재단을 통하여 취약 계층을 돌보고 인재를 양성하는데도 열정을 쏟았다.

이제 눈물과 사랑의 십자가를 후대에 맡기고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떠난다. 오로지 ‘교회’만 있었는데 교회를 떠난다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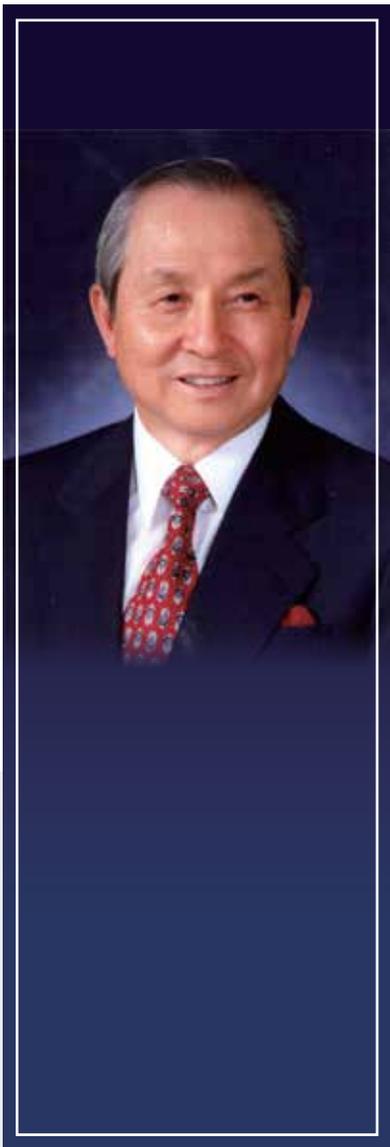
떠나는 그 한 걸음의 무게를 어찌 알 수 있을까.

정성진 목사의 다음 발걸음인 크로스로드선교회를 통해 더 크고 환한 빛이 한국 교회와 복녘의 하늘 끝까지 밝게 비출 것을 믿는다.

<겨자씨> 편집부

2006년 이스라엘 요르단 성지 순례 중 광야에서 기도하는 정성진 목사





정성진 위임목사 은퇴를 축복하며

글 · 김정환 목사(극동방송 대표이사)

정성진 목사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령한 비밀을 알기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평생 외치며 실천해 왔습니다.

건강한 목회의 본으로 대안 학교의 모델을 제시하며, 작은 교회들을 부지런히 섬겼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펼쳤습니다.

극동방송의 전파가 철(鐵)의 장막, 죽(竹)의 장막을 넘듯, 목사님은 사회의 벽과 문화의 장벽 너머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취가 지금 한국 교회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의 은퇴 후 다음 세대 목회자들을 세우고,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는 일이 참 기대됩니다. 목사님의 영성과 야성을 이어 받은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이 분단의 철조망을 걷어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정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을 꼭 빼닮은 거룩한빛광성의 모든 가족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갖춘 목회자

글 · 김창인 목사(광성교회 원로목사)

1. 정성진 목사님은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목회는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사명입니다. 그래서 내조자의 도움이 매우 절실합니다. 1991년 9월 4일, 김호권 목사님(現 동부광성)의 소개로 정성진 전도사님(당시)이 광성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송점옥 사모님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17년간이나 공무원 생활을 해 왔던 상황이었습니다. 3년만 더 근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교회 사역에 전념하고자 근무하던 기관에 과감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감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송점옥 사모님이 구역(목장)장을 맡아 1년을 섬겼는데, 구역 식구가 갑절로 증가하여 구역을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구역장의 실력과 열정이 그만큼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모님을 성경 교사로 선발하여 성경반을 맡겼더니 단연 그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모님은 밤마다 교회에 나와서 철야기도를 하였습니다. 송 사모님은 분명 기도의 사람, 열정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모님을 내조자로 만난 정성진 목사님은 정말 행복한 목회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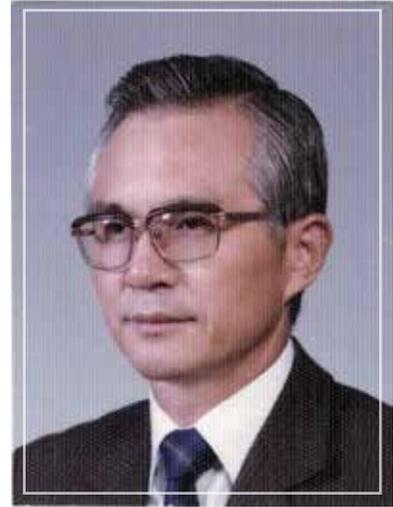
2. 정성진 목사님은 근면 성실한 목회자입니다

1992년 5월 12일, 정성진 전도사님은 서울 동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전임 비서가 없었고, 교구 부목사 중 한 사람이 그 일을 맡아 도왔습니다. 정 목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 비서 업무

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1992년에는 제가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정 목사님은 여전히 교구장을 하면서 비서 행정, 주보 작성, 설교집 교정·발간, 연초에 4만 명 교인 일람책 발간까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과중한 업무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은 여름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었고 밤을 새우는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막중한 일들을 제때에 다 마무리하곤 하였습니다. 정 목사님의 헌신 덕분에 저는 부총회장 당선 이후 총회장까지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쁜 상황에서도 정 목사님은 교구를 잘 돌보고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교구가 갑절로 성장했고, 덕분에 교구를 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제가 만난 목회자 중에서 가장 근면하고 성실한 목회자였습니다. 정 목사님과 송 사모님, 너무나 훌륭한 내외분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3. 정성진 목사님은 탁월한 설교자이며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 목사님이 광성교회에 부임 후 했던 첫 설교를 들었을 때, 저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구나!'라고 감탄했었습니다. '될성부른 나무'임을 예감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가 정 목사님의 설교는 '긴 여운을 남긴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영국이 나온 세계적인 설교자 스펠전 목사 같은 인물이 한국에서 나기를 바랐습



니다. 설교는 목회자에게 생명이라 하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 그 본문을 접할 때마다 은혜가 되살아나곤 합니다. 저는 정 목사님께서 한국의 스펠전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정 목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996년 6월 1일 교회 개척을 앞두고, 저는 정성진 목사님을 광성기도원의 원목으로 파송했습니다. 광성교회가 교회 개척할 때에는 기도원 원목사역을 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였고 때문입니다. 정 목사님이 원목사역을 잘 감당하신 덕분에 기도원을 찾는 성도들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정 목사님이 맡은 일마다 그 결과는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투철한 소명감과 기도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 목사님을 일산으로 인도하시어 1997년 1월 9일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내놓고 자랑해도 손색없는 기록한빛광성교회가 되었습니다. 정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큰 나무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을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정 목사님 내외분을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거룩한 열매, 하늘까지 이르기

글 · 전수현 목사(전 금왕교회 담임목사)

먼저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던 정성진 목사의 목회를 마침내 거목(巨木)으로 세우시고 한국 교회를 비추는 거룩한 빛의 등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성역의 한 매듭을 짓고 더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시는 정성진 목사님과 송점옥 사모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정성진 목사의 사비를 들여 지은 금왕교회 사택. 2018년 새 사택을 짓기 위해 허물었다. 사진은 당시 철거 작업 중인 모습

새벽부터 여섯 개 부락 누비며

40년 가까운 목사의 위대한 사역의 기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물음에 목회 초년기를 토대로 본다면 무엇보다 마음 중심에 깊이 뿌리 내린 목회 영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83년 10월, 전도사님이 택한 첫 사역지는 입지 좋은 도회지 교회가 아니라 충북 음성군의 한 폐광촌에 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한 때 성하였던 금광이 폐광되면서 인력과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대부분 노인들만 남은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울고 웃기 위하여 금왕교회에 부임한 것입니다.

교회 주변에 꽃을 가꾸고 나무들을 심으며, 새벽부터 인근 여섯 개 부락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그늘진 이웃들을 찾아 다녔습니다. 농사일 등 낯선 일들을 물어 가며 함께 모를 심고 김을 매며 동네 분들과 함께 호흡하였습니다. 탁월한 리더십과 불같은 열정으로 지역 사회를 섬기니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되었고, 성도는 물론 믿지 않는 이들과 타 종교인들까지도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풍 맞은 주민 매일 재활 도와

세월이 많이 지나고 필자가 금왕교회에 부임하였을 때였습니다. 봉곡 마을을 다니며 전도를 하던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한사코 밥을 먹고 가야 한다며 상을 차렸습니다. 커피를 주시면서 “나두 하느님 아버지 집에 나가야지” 하고 교회 출석을 약속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90세를 바라보는 김옥순 할머니는 굽은 허리에 지팡이를 짚고 고개 넘어 무기(무극) 장터까지 십리 가까운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은 즉, 남편 박영옥 어른신이 중풍으로 쓰러져 11년간 고생을 하는 중, 정성진 전도사님이 날마다 찾아와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셨답니다. 자부이신 민병순 권사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풍을 맞아 쓰러진 시아버님을 매일 같이 찾아와 똥 수발을 다 들며 재활 운동을 시키어 결국 일어나게 되셨어요.” 할머니는 그것이 너무 고맙고 고마워서 “나도 교회에 가야지, 교회 나가야지…….” 하셨는데 30여 년이 흘러서 마침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 빼어 교회 사택 건축

목사님은 첫 목회 때부터 비움과 나눔의 영성을 몸소 보이셨습니다. 당시 전도사님 부부의 전세 보증금까지 빼어 사택을 건축한 것입니다. 끌어 모아 쌓는 것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영성으로 목회의 밑거름을 삼은 것입니다.

1985년 7월 천호동 광성교회 부목사로 부임하기까지 2년여의 시무 기간 동안, 폐광의 여파로 쇠하여 가던 교회와 마을에 큰 부흥과 발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와 여러 가지 중한 사역들을 펼치시는 중에도 첫 목회지에 대한 목사님의 관심과 애정은 변함이 없어 여러모로 후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가끔씩 뵈 때마다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하나하나 부르시며 안부를 물으시곤 합니다. 가장 어른이신 김좌배 권사님이 살아계시는지 물으실 때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찾아봐야 하는데…….” 하시더니 3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정말로 신개촌 마을을 찾아 주셨습니다.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는 뜻 깊은 만남 후에 권사님은 몇 해를 더 사시고 96세의 일기로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배당과 사택이 많이 낡았는데, 다행히 초기 성도들이 사놓은 토지를 매각하여 건축 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말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하였고 2018년 봄에는 사택을 짓기 위해 정성진 목사님이 사비를 들여 건축한 이전 사택을 철거하게 되었는데, 철거 모습을 목사님께 사진으로 보내드려 은혜의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비우고 나누며

그루터기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는 비움과 나눔의 목회에 영성의 뿌리를 깊이 내려 '아사교회생(我死教會生)'의 목회철학과 '재가(在家) 수도사'의 영성으로 피어나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성교회 부목사 시절에 타이어가 닳도록 심방하는 우직한 충심의 영성으로 줄기가 세워지고, 밤가시마를 개척기에는 향기 나는 영성의 꽃으로 활짝 피었습니다. 줄 낡은 시계를 손목에 매시고, 종이컵 하나로 하루를 사용하며, 한 여름에 러닝셔츠 차림으로 설교 준비를 하시던 손님 올 시간이 되면 에어컨을 가동하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미래와 지역 문화를 위한 일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축 이전한 거룩한

빛광성교회는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중심 터가 되어 수많은 사람이 깃들여 쉼과 안식을 얻고 영혼 소성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는 영성의 거목으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세기를 지나면서 새로운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가 만연한 이 시대에 정성진 목사님과 거룩한빛광성교회를 목회의 모델과 뿌리 깊은 영성의 귀감으로 세워 주심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역설적 표징입니다.

젊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목회와 영성의 대를 잇게 하는 일에 더욱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은퇴를 넘어 교회와 민족을 위한 새롭고 요긴한 사역을 준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큰 걸음에 임마누엘의 은총이 넘쳐 거룩한 열매가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 닮으시.



1. 전수현 목사

2. 2018년 건축한 금왕교회 새 성전

2





1

정성진 목사의 첫 사역지 금왕교회 손문영 장로의 편지 폐광촌의 멘토로

글 · 손문영 장로(금왕교회)

정성진 목사님의 은퇴를 금왕교회 전 교우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의 첫 사역지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자리한 금왕교회 손문영 장로입니다. 1983년 10월 3일, 정성진 목사님께서서 조남봉 전도사님의 후임으로 금왕교회 담임전도사로 부임하신 첫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는 목사님보다 다섯 살 많은 총각 집사였지요.

당시 금왕교회는 장년 대여섯 명과 학생 너댓이 예배드리는 작고 조용한 교회였습니다. 또 대부분의 폐광촌이 그렇듯 이곳 또한 미처 떠나지 못한 사람과 노년층만 남아 있는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금·은 생산량의 40~50%를 차지할 만큼 호황을 누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광이 되고 부터는 이곳을 수놓았던 화려한 불빛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긴, 너무나 고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폐광촌에 목사님은 활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손문영 장로

1. 금왕교회 담임전도사 시절의 정성진 목사. 여성성경학교 후 한 학생에게 사상하고 있다

2. 정성진 목사가 담임전도사로 사역할 당시의 금왕교회. 신학교 졸업 전 담임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정성진 목사는 금왕교회 2년 사역 동안 백여 명을 전도했다

3. 정성진 목사, 송점옥 사모가 전세 보증금을 빼서 사비로 지은 금왕교회 사택. 사택이 완공되는 날 중·고등부 학생들이 사택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새벽 예배 후 장화를 신고 논밭으로 들어가 주민들의 일손을 돕기도 하고, 애로점을 물어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하셨습니다. 복음이 자연스럽게 주민들에게 심어졌습니다.

주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삶으로 복음을 나누던 젊은 담임전도사,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목회자였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잘 하셨던 사모님. 사모님의 반주는 찬양을 더욱 은혜롭게 하였습니다. 덕분에 금왕교회는 찬양 소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또한 학생들의 진학, 취업을 상담하는 멘토가 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록 교인이 백여 명에 이를 때쯤 목사님께서 교회 사택을 짓자고 하셨지만, 당시 교회 형편으로는 사택은 어렵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서는 사택 건축 비용은 걱정 말라며, 서울 집의 전세금을 빼서 사비로 교회 사택을 짓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모님과 주말 부부로 지내셨는데 토요일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던 사모님께서 반찬을 해 가지고 내려와서 교인들과 함께 나누곤 하셨지요.

사택이 완공될 즈음 목사님께서서는 금왕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송점옥 사모님께서 유산을 한데다 간염에 걸려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교인들은 새로 지은 사택에서 하룻밤이라도 지내고 가시라며 권했지만 목사님께서서는 구(舊)사택에서 묵으시고, 사택이 완공되는 날 금왕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지금 금왕교회는 성전을 새로 건축하고, 목사님께서 전세금을 빼어 지은 사택은 몇 장의 사진으로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폐광촌에 푸른 잎을 돋게 하고, 예수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주민들의 삶 속으로 뛰어든 젊은 담임전도사의 열정은 여전히 이곳을 향기롭게 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축하드리며,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성진 위임목사를 보내며 코람데오 정신으로 언행일치 삶을 보여 준 23년



글 · 김옥현 장로(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로부터 '정성진 위임목사 23년의 목회 여정'에 대한 원고를 부탁받고 '어떻게 감히 이 시대 영적 거인에 대한 내용을 담아 낼 수가 있을까?'가 고민되었습니다. '몇 사람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냈지만 한 사람이 글로 쓰는 것이 정성진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진솔하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겨자씨〉팀의 편집 의도에 따라 미력하나마 제가 글로 쓰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을 다 나열할 수도 없고, 목사님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자료를 살펴보기도 하고, 또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 2010년 서울 시청 앞에서 개최된 '광복 65주년 한국 교회 8·15대성회'에서 정성진 목사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한 기독교인들을 대신해 신사참배 회개 기도를 하고, 한국 교회에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개혁과 행함의 목회자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와 5대 비전 그리고 그간의 어록에서 정성진 목사의 목회 철학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성진 목사의 목회 철학

3대 목표 5대 비전

3대 목표 :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5대 비전 : 지역 사회 문화 중심, 고양·파주 성서 본부, 한국 교회 개혁 모델, 북한 선교 전초 기지, 세계 선교 중심 센터

정성진 목사의 어록

아사교회생(我死教會生)/ 겸손 또 겸손 그리고 겸손 / 교회는 퍼 주다 망해도 성공이다 /

성장 전략은 없고 건강 전략만 있다 / 우리 교인에게는 망할 자유도 있다 /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 / 회의만 잘 해도 교회가 평안하다 /

개혁은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갱신으로 나타나야 한다 /

싸우면서까지 할 만큼 좋은 일이란 없다 / 교육 부서 예산은 100% 늘 어주어라 /

잘 하려고만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해라 /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을 뿐 한 번도 명예의 관을 쓰신 적이 없다 등

정성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반영한 교회 규약은 23년 후 지금의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이루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1997년 1월 개척 이래 2000년 6월 11일 제정 시행한 교회 규약은 뚜렷한 개혁 성향의 제도와 당회 운영, 3대 목표의 설정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 지향적입니다.

정성진 목사의 목회는 '개혁과 행함, 내려놓음, 교회 사랑'으로 함축됩니다. 한국 교회 개혁 모델의 기치로 내 건 내용 중 '담임목사 65세 정년, 원로목사 제도 폐지' 등 쉽지 않은 결단을 실천함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퇴임에 온 성도는 아쉬움을 느끼면서도 그 뜻을 존경함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를 짜고 짜면 코카콜라가 아니라 교회가 나온다.”

이 말에 정성진 목사의 교회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 교회 개척 후 처음 연 제1회 사랑의 바자회(1997년 10월 25일) 테이프 컷팅. 매년 10월 교회 앞마당에서 열리는 바자회는 교인들의 사랑과 나눔 잔치로 그 수익금은 불우 이웃을 돕는데 사용된다



⊆ 2008년 4월 27일 거룩한빛광성교회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을 제자의 길에 묻었다

주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사람

정성진 목사와 송점옥 사모, 두 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기도로, 섬김으로, 물질적인 헌신으로 교회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보여 주셨습니다.

개척 초기 정성진 목사는 송점옥 사모가 마련한 집을 교회에 건축헌금 하셨습니다. 또 2차 건축헌금 작성 시에도 자녀, 손자를 포함한 온 가족 이름으로 3년분의 사례비를 헌금하셨으며, 얼마 전 은퇴 퇴직금 전액을 거룩한빛온정교회 개척자금으로 드리기도 하셨습니다.

또 부친상 부조금과 두 자녀 결혼식 축의금을 선교헌금으로 내셨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셨으며, 목사의 수입으로 가장 많은 헌금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서 수입대비 가장 많은 퍼센트(%)의 헌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몇 년 전 교회의 부채가 많다고 생각한 송점옥 사모는 어렵게 모아 두신 거금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재정 담당자가 말한 후에야 정성진 목사가 알게 된 이 일은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는 정성진 목사와 송점옥 사모의 재물관과 청빈한 삶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1.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교회 창립 14주년을 맞은 2011년 1월 9일, 앞을 잘 못 보는 40명의 개인 수술을 지원하고, 파평산 공군기지 교회 건축을 지원했다

2. 2006년 4월 27일, 다섯 쌍의 새터민에게 합동 결혼식을 올려 주고 사랑의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신혼살림을 지원해 주었다

3. 거룩한빛광성교회 첫 번째 개척교회인 파주광성교회(현 주사랑교회) 착공 첫 삽을 뜨던 날

24개 교회 분립개척

목사님은 2002년 교회 표어를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로 정하고 기도하던 중 현재 교회 위치인 덕이동 부지가 하나님께서 머무실 성전으로 삼으시려고 예비해 주신 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때 '주여, 주님의 손으로 세우소서'를 외치며 건축 현장 컨테이너 기도실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예배 때 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 보자!"를 힘차게 외치고 찬송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아야 한다', '나를 남기지 않고 교회를 남기겠다'라는 목회 신념으로 23년간 열린광성교회까지 24개의 교회를 분립 개척하였으며, 2018년 개척한 거룩한빛운정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세 개의 교구를 떼어 보낼 만큼 과감한 결정을 하셨고, 목사님 자신도 개척 멤버로 동참하셨습니다.

금홍 사역과 인재 양성

'병든 자의 손을 잡아 주고, 소외된 자를 품어 주며,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고, 배고픈 자를 먹여 주고, 나그네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교회의 본질로 정의하셨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임을 분명히 하고, 해피월드복지재단, 장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여러 기관을 통하여 다양한 금홍 사역과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교회 3대 목표 중 하나인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한나래유치원 및 광성드림학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학교 교육 및 운영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으시고 교육 전문가에 맡기셨습니다. 또 학생 및 교사 모집에 있어서도 일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성진 목사는..."

권평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정성진 목사의 특징, 리더십에 대하여 『거룩한빛광성교회 20년사』에서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성, 빠른 실행력, 핵심을 찌르는 한마디, 시대의 조류에 민감한 사람, 이야기꾼, 행동으로 보여 주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폭 넓은 목사님의 수용성이 거룩한빛광성교회를 건강한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께서서는 무엇을 건의하거나 이야기해도 '안 된다'는 부정적 언사를 하지 않으시며, 의사 결정을 뒤로 미루시지 않고 빠른 판단력으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는 그의 페이스 북에 '내 친구 정성진 목사는?'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신조를 목회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 온 내 친구 정성진 목사는 우리 시대 몇 안 되는 진정한 목회자다운 목회자다."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그는 후배들과 신학생들에게 "청빈과 청결과 수도자적 영성과 자발적 기부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기도 하셨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여정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언행일치의 삶으로 본 된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훈을 다시 한 번 되 새겨 보면서 미력하나마 목사님의 뒤를 따르고자 다짐해 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_요일 3:16

-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 ⊕ 의료진 협진시스템
- ⊕ 건강검진센터 운영



든든한병원

진료내용

척추 **관절** **내과** **검진** **치과**

[병원장 / 김진만 장로]

[일산가구공단 사거리]

 **1577-9177**

일산서구 덕이지구(덕이동 1551)

 www.15779177.co.kr

“소중한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일산농협 풍산역지점 개점

개점기념 이벤트

- ✓ **입출금 통장 개설 시 사은품 증정**
- ✓ **예금·적금 특판행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로 63 현대프라자 2층
(일산 센트럴아이파크 정문 맞은편)

문의 및 상담 031)977-8062

고양시민 이세요?

예금이자 + 배당까지
비과세예금 3천만원 지금 신청하세요!